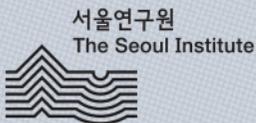


2014-CR-17

작은 연구 좋은 서울 14-16

## 서울, 근대 문학과 미술의 장소

홍수영 양지원



2014-CR-17

서울, 근대 문학과 미술의 장소

## 연구진

연구책임	홍수영	황두진건축사사무소 오피스 큐레이터
공동연구	양지원	시각예술가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차례

<b>I</b>	<b>연구의 개요</b>	<b>11</b>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1 1	연구의 배경	12
1 2	연구의 목적	12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3
2 1	연구의 내용	13
2 2	연구의 방법	14
<b>II</b>	<b>근대 문학의 장소</b>	<b>17</b>
1	한용운	19
1 1	한용운의 장소	19
1 2	한용운의 장소 동선	24
1 3	한용운의 장소 테마 활용	25
2	염상섭	26
2 1	염상섭의 장소	26
2 2	염상섭의 장소 동선	29
2 3	염상섭의 장소 테마 활용	30
3	이태준	31
3 1	이태준의 장소	31
3 2	이태준의 장소 동선	34
3 3	이태준의 장소 테마 활용	34
4	박태원	36
4 1	박태원의 장소	36

4 2	박태원의 장소 동선	43
4 3	박태원의 장소 테마 활용	44
5	이상	45
5 1	이상의 장소	45
5 2	이상의 장소 동선	55
5 3	이상의 장소 테마 활용	57
6	백석	58
6 1	백석의 장소	58
6 2	백석의 장소 동선	62
6 3	백석의 장소 테마 활용	63
7	서정주	64
7 1	서정주의 장소	64
7 2	서정주의 장소 동선	70
7 3	서정주의 장소 테마 활용	70
8	윤동주	71
8 1	윤동주의 장소	71
8 2	윤동주의 장소 동선	73
8 3	윤동주의 장소 테마 활용	73
9	오장환	74
9 1	오장환의 장소	74
9 2	오장환의 장소 동선	76
9 3	오장환의 장소 테마 활용	77
10	김수영	78
10 1	김수영의 장소	78
10 2	김수영의 장소 동선	81
10 3	김수영의 장소 테마 활용	81

<b>III</b>	<b>근대 미술의 장소</b>	<b>83</b>
1	고희동	86
1 1	고희동의 장소	86
2	이상범	88
2 1	이상범의 장소	88
3	전형필	92
3 1	전형필의 장소와 인물	92
4	김환기	96
4 1	김환기의 장소	97
4 2	김환기와 인물	99
5	김종영	103
5 1	김종영의 장소	103
6	최순우	105
6 1	최순우의 장소	106
7	권진규	107
7 1	권진규의 장소	108
8	박노수	110
8 1	박노수의 장소	110
9	창덕궁 벽화	113
9 1	창덕궁의 화재와 복원	113
9 2	당대 최고의 화가와 신진세대 화가	114
9 3	위치와 현황	116
10	천경자	117
10 1	천경자의 장소	118
11	나혜석	120
11 1	나혜석의 장소	122

12	구분옹	127
12 1	구분옹의 장소	128
13	이중섭	129
13 1	이중섭의 장소	130
14	박수근	132
14 1	박수근의 장소	132
15	장소의 연결 1 - 창신동	135
16	장소의 연결 2 - 서울을 구심점으로	138
17	공간의 재현	142
<b>IV</b>	<b>결론과 정책 제언</b>	<b>145</b>
	<b>참고문헌</b>	<b>149</b>

## 그림 차례

그림 2-1	심우장	19
그림 2-2	만해가 심은 향나무	21
그림 2-3	심우장에서 공연된 뮤지컬 ‘심우’	21
그림 2-4	유심	22
그림 2-5	유심사 터	22
그림 2-6	옛 태화관	23
그림 2-7	관련 기사	23
그림 2-8	태화빌딩	23
그림 2-9	계동 산길 창덕궁 전망	24
그림 2-10	염상섭 생가 터	26
그림 2-11	염상섭 동상	28
그림 2-12	옛 세브란스 병원이 있던 자리	29
그림 2-13	수연산방에서 이태준과 가족	31
그림 2-14	찾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연산방	33
그림 2-15	박태원 집터 다옥정(다동) 7번지 부근	36
그림 2-16	청계천 상류에 복원된 광고	37
그림 2-17	원래 위치의 광고와 종로타워	39
그림 2-18	장곡천정	42
그림 2-19	이상의 집 1	45
그림 2-20	이상의 집 2	46
그림 2-21	서울대 김민수 교수 강연	46
그림 2-22	문학평론가 신형철 강연	46
그림 2-23	신명학교 터	47

그림 2-24	사직공원 산기슭	49
그림 2-25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화역 서울 284	50
그림 2-26	미쓰코시 백화점 옥상정원과 카페	51
그림 2-27	신세계백화점 본점 옥상정원과 카페	52
그림 2-28	제비다방 근처로 추정되는 위치	53
그림 2-29	이상과 변동림의 신혼집 터	55
그림 2-30	보성고보 터	55
그림 2-31	이상의 서촌 동선	57
그림 2-32	사라진 이상의 장소 동선	57
그림 2-33	길상사	58
그림 2-34	진영각과 법정 스님이 쓰던 의자	59
그림 2-35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 시비와 길상화불자공덕비	60
그림 2-36	태서관	61
그림 2-37	북악산	62
그림 2-38	공덕동 시절 서정주 시인의 모습	64
그림 2-39	서정주 시인이 쓰던 가구	67
그림 2-40	봉산산방 공사비 관련 메모	67
그림 2-41	서정주 시인의 옷	67
그림 2-42	마지막으로 마시던 맥주	67
그림 2-43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갤러리 보안여관	69
그림 2-44	윤동주 문학관 외부	71
그림 2-45	윤동주 문학관 ‘열린 우물’과 ‘닫힌 우물’	72
그림 2-46	윤동주 하숙집 터	73
그림 2-47	갤러리 보안여관	76
그림 2-48	마리서사의 과거와 현재	78
그림 2-49	동양서림	80

그림 2-50	주합루 규장각	81
그림 2-51	선향재	81
그림 3-1	고희동 가옥 내부	87
그림 3-2	청전화옥 마당	89
그림 3-3	청전화옥 내부	91
그림 3-4	청전화숙 내부	91
그림 3-5	〈론도〉(1938)	97
그림 3-6	1957년 파리에서 최순우에게 보낸 연하장	101
그림 3-7	최순우 옛집	106
그림 3-8	〈지원의 얼굴〉(1967)	108
그림 3-9	권진규 아틀리에	109
그림 3-10	박노수 가옥(현 박노수 미술관) 정원	111
그림 3-11	김규진의 〈해금강총석정절경도〉	114
그림 3-12	김규진 〈금강산만물초승경도〉의 부분	115
그림 3-13	서울시립미술관 천경자 전시 포스터	118
그림 3-14	〈생태〉(1951)	119
그림 3-15	여자미술학사 터(현 OCI 미술관)	123
그림 3-16	수원 인계동 나혜석 거리	126
그림 3-17	〈우인상〉(1935)	128
그림 3-18	박수근 집 터 표석	134
그림 3-19	창신동 절개지 풍경	134
그림 3-20	〈도시의 산책자〉 지도 앞면	135
그림 3-21	청전 이상범	142
그림 3-22	화실 안의 연못	142



#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I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1 연구의 배경

도시에 새 건물을 짓고 랜드마크 건축을 지향하는 동안, 사람과 시간의 흔적은 지워지고 고유한 장소감은 사라져갔다. 흔적을 지우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면서 너무 빨리 변해버린 서울은 이제 기억을 담아내지 못하는 도시가 되어버렸다.

특히 근대는 오래된 역사보다 더 빨리 사라져버렸다. 격변 속에서 기억을 담거나 의미를 정리하지 못한 채 지워져 버린 근대의 흔적은 오히려 더 멀어진 과거가 되어버렸다.

이 연구는 서울에서 근대 문학과 미술의 의미 있는 장소를 발굴하여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장소는 흔적들의 지속적인 구성물(ongoing composition of traces)이다<sup>1</sup>. 사라진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흔적을 찾는 일은 도시 장소성에 정신적 유산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에 흩어져 있는 근대 문학과 미술의 문화유산에는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도 포함된다. 이 연구는 서울의 다채로움과 깊이를 재발견하기 위해 예술가의 작품과 주변 이야기를 발굴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특정 장소에 묻혀 있는 시간과 사람의 흔적을

---

1 존 앤더슨, 2013, 「문화·장소·흔적 : 문화지리로 세상 읽기」, 한울아카데미

발견할 수 있는 서울의 문화예술 루트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2.1 연구의 내용

이 연구는 개화기부터 해방 전후 서울의 근대 시기 문학과 미술의 장소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문학과 미술 전공자가 각 분야를 맡아 공동 연구로 진행할 것이며, 주로 작가의 작품과 삶의 궤적을 추적하여 관련된 장소를 재발견하고자 한다.

#### ○ 문학의 장소

작가	장소
한용운	옛 유심사, 심우장, 태화관
염상섭	체부동 생가, 옛 황토현, 조선신궁터
이태준	수연산방
박태원	다옥정 집터, 광통교, 화신백화점, 한강, 낙랑파라, 독립문
이상	이상의 집, 신명학교 터, 사직공원 산기슭, 경성역 티룸, 미쓰코시 백화점, 제비다방, 보성고보 터
백석	길상사, 공평동 태서관 등
서정주	보안여관, 명월관, 서정주가옥
윤동주	누상동 하숙집 터, 윤동주 문학관
오장환	보안여관, 남만서점
김수영	마리서사, 동양서림

○ 미술의 장소

작가	장소
고희동	원서동 고희동 가옥
이상범	누하동 청전화숙
전형필	성북동 간송미술관
김환기	부암동 환기미술관, 수향산방, 서울미술원, 종로화랑, 신안 김환기가옥
김종영	평창동 김종영 미술관
최순우	성북동 최순우 옛집
권진규	동선동 권진규 아틀리에
박노수	육인동 박노수 가옥
창덕궁 벽화	창덕궁 내 대조전, 경훈각, 희정당
천경자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관
나혜석	정동예배당, 여자미술학사, 수덕여관, 경성보육원, 나혜석 거리
구본웅	필운동 집터
이중섭	누상동 집터
박수근	창신동 박수근 집터

2.2 연구의 방법

문학의 장소는 근대 주요 작가의 작품에 등장한 장소를 살펴보고, 작가의 생애를 추적하여 의미 있는 장소를 조사하였다. 기존의 연구 서적을 살피고 가능한 장소의 답사를 통해 현재에 어떻게 문화유산을 활용할 수 있는지 주제별로 분류해 보았다. 장소와 관련된 예술 작업 사례를 검토하고, 작업을 진행한 작가도 직접 인터뷰하였다.

미술의 장소는 근대미술작가 중에 현존하는 작가의 집이나 작업실을 주요 대상으로 정하고, 작가에게 의미 있는 장소와 작품을 접할 수 있는 장소까지 조사하였다. 자료조사와 현장답사로 현재 장소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예술작업을 했던 예술가도 인터뷰하였다.



## II 근대 문학의 장소

- 1 한용운
- 2 염상섭
- 3 이태준
- 4 박태원
- 5 이상
- 6 백석
- 7 서정주
- 8 윤동주
- 9 오장환
- 10 김수영

## II 근대 문학의 장소

주요 작가를 선정하는 기준은 시간이 흐른 현재에도 대중 및 연구자가 여전히 관심을 두고 연구하며 문학사에서 현재성을 함의하고 있는 지로 삼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꼽을 수 있는 주요 작가는 한용운, 이상, 박태원, 백석, 서정주, 김수영 등이다. 또한 이들과 함께 활동하고 교류하며 그 역시 문학사에서 중요한 작품을 발표한 작가를 추가로 선정하여 연구에 포함하였다.

## 1 한용운(1879-1944)

한용운은 1879년 8월 29일 충청남도 홍성에서 출생하였다. 1905년 강원도 인제의 백담사에 가서 연곡(漣谷)을 스승으로 출가했다. 1926년 시집 「님의 침묵」을 출판하였으며 1935년 첫 장편소설 「흑풍」을 조선일보에 연재하였고 1938년 장편소설 「박명」을 발표했다. 대표 저서로는 「조선불교유신론」 등이 있다. 1944년 6월 성북동 심우장에서 증풍으로 별세하였다.

### 1.1 한용운의 장소

#### ○ 심우장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29길 24(성북동 222-1번지)

만해 한용운이 1933년에 지은 집이다. 3·1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만해가 남향의 조선총독부와 등지기 위해 집터를 잡았기 때문에 북향집이 되었다. 왼쪽에 걸린 현판은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서예가 오세창(1864~1953)이 쓴 것이다.



그림 2-1 심우장

만해가 쓰던 방에는 그의 글씨, 연구논문집, 옥중 공판기록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만해가 죽은 뒤에도 외동딸 한영숙씨가 살았는데, 일본 대사관저가 이곳 건너편에 자리 잡자 명륜동으로 이사를 하고 이곳은 만해의 사상연구소로 사용되었다.

만해는 심우장에 머무는 동안 연작시 「심우장 산시」(1936년 4월 3~5일), 수필 「심우장 만필」(1936년 3월 19~20일)과 장편 소설 「흑풍」 등을 조선일보에 발표했다.

떠갈 세상을 떠나면  
모든 것을 잊는다 하기에  
산을 깎아 집을 짓고  
돌을 뚫어 새암을 팠다.  
구름은 손인 양하여  
스스로 왔다 스스로 가고  
달은 파수꾼도 아니건만  
밤을 새워 문을 지킨다.  
새소리를 노래라 하고  
솔바람을 거문고라 하는 것은  
옛사람의 두고 쓰는 말이다.  
님 그리워 잠 못 이루는  
오고 가지 않는 근심은  
오직 작은 베개가 알 뿐이다.  
공산(空山)의 적막(寂寞)이여  
어디서 한가한 근심을 가져오는가.  
차라리 두견성(杜鵑聲)도 없이  
고요히 근심을 가져오는

오오 공산(空山)의 적막(寂寞)이여.

한용운, 심우장 산시 1 「山居」

현재 심우장은 만해가 직접 심은 향나무 등이 마당에 있으며 마지막 여생을 보낸 북향 한옥이 그대로 보존되어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다. 일반 관람뿐만 아니라 만해의 독립운동 시절을 그린 창작뮤지컬 ‘심우’ 공연장소로도 활용되었다. 이 때 실존 인물이 살았던 곳이 공연장으로 쓰이면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그림 2-2 만해가 심은 향나무    그림 2-3 심우장에서 공연된 뮤지컬 ‘심우’(2014.10.11)

자료: 성북문화재단

○ 유심사 터(만해당)

서울시 종로구 계동길 92-3(계동 43번지)

『유심(惟心)』은 1918년 9월 1일자로 창간된 불교잡지인데, 그 해 12월 통권 3호로 종간했다. 판권장을 보면, 편집 겸 발행인 한용운(韓龍雲), 인쇄인 최성우(崔誠愚), 인쇄소 신문관(新文館), 발행소 유심사(서울·계동 43), A5판 64면, 정가 18전이다.

만해가 거주할 당시 3·1 독립운동에 참여한 장소로서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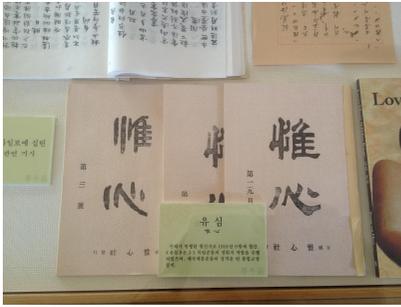


그림2-4 유심(심우장 내 전시)



그림 2-5 유심사 터(현재 만해당)

유심사가 있었던 곳은 현재 만해당이라는 한옥 게스트하우스로 운영되고 있다.

○ 태화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94-27

태화관은 지금의 종로구 인사동에 있던 요릿집으로 명월관(明月館)의 분점격이었다. 명월관은 한말에 궁내부 주임관(奏任官) 및 전선사장(典膳司長)으로 있으면서 어선(御膳)과 향연을 맡아 궁중요리를 하던 안순환(安淳煥)이 1909년에 지은 요릿집이다.

명월관은 개점 초기부터 대한제국의 고관과 친일파 인물들이 출입한 곳으로, 후기에는 문인·언론인들과 국외에서 잠입한 애국지사들의 밀담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18년 명월관이 소실되자 안순환은 순화궁(順和宮: 지금의 종로구 인사동 194)에 명월관의 분점격인 태화관(太華館)을 차렸다. 후에 현재의 이름인 태화관(泰和館)으로 개명하였다. 이곳은 3·1 독립운동 때 민족대표들이 모여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축하연을 베푼 곳으로 유명하다.

독립만세운동 계획을 1919년 2월 28일까지 완료한 민족대표 33인 중 29인(길선주·김병조·유여대·정춘수 등 4인은 지방에 있었으므로 불참)은 태화관에 모였다. 독립선언 시각인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손병희(孫秉熙)는 최린(崔麟)으로 하여금 태화관 주인 안순환에게 조선총독부로 전화를 걸게 하여 “민족대표 일동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지금 축배를 들고 있다”고 통고하였다.

이에 일본경찰대 80여 명이 곧 달려와 태화관을 포위하였다. 이때 민족대표들은 독립을 선언하는 한용운(韓龍雲)의 식사를 듣고 그의 선창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제창한 뒤 일본경찰에 의연하게 연행되었다. 이와 함께 파고다 공원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독립의 함성은 전국방방곡곡으로 퍼져 나갔다.

태화관 자리에는 태화빌딩이 건축되어 있으며, 건물 앞에는 3·1 운동 때 독립선언식의 장소였음을 표시하는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다.



그림 2-6 옛 태화관  
자료 : 한국민족대백과



그림2-7 관련 기사  
자료 : 경향신문 1982.7.12



그림 2-8 태화빌딩

## 한용운의 장소 동선

### ○ 3·1 운동의 장소 동선

보성사 터 ~ 태화관 ~ 탑골공원 ~ 유심사 ~ 중앙고등학교

종각역을 기준으로 독립선언서를 인쇄했던 보성사 터(현 조계사 후문)와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탑골공원, 유심사 터, 3·1 운동을 모의했던 중앙고등학교 숙직실 등은 도보로 이동 가능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으며, 한용운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3·1 운동과 관계있는 장소들이다.

### ○ 심우장 동선

계동산길 ~ 성북동 심우장

계동 유심사나 중앙고등학교에서 출발하여 계동 산길과 와룡 공원을 거쳐 심우장이 있는 북정마을까지 1시간 이내에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이며, 서울성곽의 일부 구간을 같이 체험할 수 있다.



그림 2-9 계동 산길 창덕궁 전망

독립운동에 힘썼던 한용운의 생애와 관련된 장소는 도시에서 자연과 역사의 장소를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 태화관(현 태화빌딩), 유심사 터(현 만해당)를 거쳐 계동산 길을 따라 도보로 이동하기에 보행환경이 쾌적하며, 종묘와 창덕궁을 조망할 수 있고 서울 성곽의 일부 구간도 같이 따라 걸을 수 있다. 한용운의 문학동선은 역사·자연 테마로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염상섭(1897-1963)

염상섭은 1897년 8월 30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상섭(尙燮), 필명은 상섭(想涉)이며, 아호는 횡보(橫步)이다. 일본 게이오대학을 중퇴하였으며 1921년 처녀작 단편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개벽에 발표하였다. 대표작으로 「만세전」, 「삼대」, 「취우」 등 다수의 장편이 있다. 1963년 3월 14일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집에서 직장암으로 별세하였다.

### 염상섭의 장소

#### ○ 염상섭 생가

서울시 종로구 체부동 106-1

염상섭이 나고 자랐던 서촌의 체부동, 필운동, 내자동, 적선동 일대를 통틀어 필운방이라 불렀다. 염상섭의 생가 터는 골목길이 남아있는 곳이어서 번지수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다.

염상섭이 살았던 곳은 현재 청마빌라 건물이 들어서 옛집의 흔적은 사라지고 없다. 염상섭과 관계있는 장소라는 안내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림 2-10 염상섭 생가 터

○ 옛 황토현

현 세종로 4거리

황토현은 광화문의 옛 이름이다. 황토현은 현재 광화문역과 서울 시청 사이에 있던 고개이다. 염상섭의 「두 파산」에서도 시대상이 잘 묘사되었듯이 옛 황토현인 세종로 사거리는 현재에도 이 사회를 관찰할 수 있는 장소로 시대를 초월하여 사회적 의미가 있다.

정례 모친이 황토현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며 열 틈에 끼어 섰으려니까, 이리로 향하여 오던 옥임이가 옆에 와서 떡 서며 시비를 건다. …옥임이는 반민자反民者의 아내가 되리라는 것을 도리어 간판으로 내세우고 부라퀴같이 뒹빈 것이다. 중경 도지사요, 전쟁 말기에는 무슨 군수품 회사의 취체역인가 감사역을 지냈으니 반민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이면, 중풍을 삼 년째나 누웠는 영감이, 어서 돌아가 주거나 하기 전에야 으레 걸리고 말 것이요, 걸리는 날이면 떼버어다가 징역은 시키지 않을지 모르되, 지나고 있는 집간이며 땅섬지기나마 몰수를 당할 것이니, 비록 자신은 없을망정 자기는 자기대로 살길을 차려야 하겠다고 나선 길이 이 길이었다. 상하 식솔을 혼자 떠맡고 영감의 약값을 제 손으로 벌어야 될 가련한 신세같이 우는소리를 하지마는 그래야 남의 욕을 덜 먹는 발뺌이 되는 것이다.

염상섭, 「두 파산」 중 “경성에서 서울까지”에서 재인용



그림 2-11 염상섭 동상

2007년 종묘 광장 정비 사업으로 삼청공원에 옮겨진 횡보 영상섭의 동상은 2014년 4월 광화문으로 돌아왔다.

○ 조선신궁 터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231

일제는 남산 자락에 일본 황실의 시조를 기리기 위한 조선신궁을 건립하였다. 1925년 10월 15일 조선신궁 건립을 기념하는 제사일에 경성역과 경성운동장의 완공 날짜를 맞췄다고 한다. 당시 경성 시내의 근대적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주요 관광 방문지였다.

신궁 앞의 축대 위에서나 남대문 문루 위에서 내려다보면 할 일 없는 개미 새끼들이 달달 볶는 가마솥 바닥에서 아물아물하는 것 같다.

염상섭, 「사랑과 죄」

현재 조선신궁 터인 남산 공원에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다.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12인이 결성한 ‘단지동맹’의 뜻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2011년 한국건축가협회가 주최한 ‘올해의 건축 베스트 7’에 선정된 건축이다. 일본 강점기 식민통치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현재는 항일 독립투사들을 기념하는 장소로 바뀌어온 역사가 아이러니하게 섞여 있는 곳으로서 의미가 있다.

○ 옛 세브란스병원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84-11

1900년 세브란스는 한국에 2만 5,000달러를 기부하여 1904년에 현대식 종합병원 건물을 준공하였고, 3만 달러를 추가로 기부하여 1913년에 의과대학 건물을 완공하였다. 남대문역 바로 건너편에 있었던 세

브란스 병원은 당시 경성의 중심지였다. 1919년 3.1 독립 운동 거사를 위해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 논의하던 장소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 현재는 연세대 세브란스 빌딩이 들어서 있다.



그림 2-12 옛 세브란스 병원이 있던 자리

## 2.2 염상섭의 장소 동선

- 서촌과 폐허 동인의 장소 동선

사직동 김만수의 집 ~ 체부동 생가 터 ~ 신교동 나혜석 오빠의 집

「폐허」파는 서울 문인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문학동인회로, 이 모임은 1920년 봄 염상섭이 귀국 무렵 태동되었다. 「폐허」는 남궁벽이 독일 시인 쉴레르(schiler)의 시구 “옛 것은 가고, 시대는 변하였다, 새 생명은 폐허에서 나온다”에서 가져왔다. 이 당시 염상섭과 함께 모인 문인들은 김안서, 남궁벽, 이혁로, 김영환, 나혜석, 민태원, 김찬영, 오상순, 김원주, 이병도, 황석우, 김만수 등 주로 서울 경기 출신이었다. 이들은 거의 매일 적선동 김만수네 집에 모였다. 그 집은 그 전에 염상섭의 집이었다. 이들은 김만수 집의 대문에 「폐허사」 간판을 걸었다.

서촌에는 「폐허」 동인이었던 염상섭과 나혜석이 살았던 집터가 있다. 각 지점을 연결하는 폐허 동인의 길은 서촌의 골목길에서 발견할 수 있다.

○ 경성유람의 장소 동선

황토현 ~ 옛 세브란스병원 ~ 옛 남대문역 ~ 옛 경성역 ~ 조선신궁 터

옛 경성의 주요 장소를 연결하는 길은 역사적으로 현재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황토현은 현재의 광화문이며 조선신궁 터는 현재 남산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황토현과 광화문은 예나 지금이나 민의를 대변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광장과 같은 곳이다. 일본이 한양도성을 허물고, 신사참배를 위한 조선신궁을 지었던 이곳에는 현재 백범 광장과 독립운동가 안중근기념관이 들어섰다.

23 **염상섭의 장소 테마 활용**

서촌에 체부동 염상섭의 생가 터와 신교동 나혜석 오빠의 집터는 보존되어 있지 않지만 아직 골목길이 남아있어 각 자리를 연결할 수 있다. 염상섭의 생가와 관련된 서촌의 문학 동선은 폐허 동인의 길로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당시 경성의 주요 장소였던 황토현을 지나 경성역과 세브란스병원 조선신궁 터를 잇는 문학 동선은 역사에 따라 그 장소의 의미가 바뀌거나 여전히 그 맥락이 흐르는 시간의 길로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이태준(1904-1970)

이태준은 1904년 11월 4일 강원도 철원군 묘장면 산명리에서 출생하였으며 호는 상허(尙虛)다. 1925년 단편소설 「오몽녀」를 『조선문단』에 투고하여 등단하였다. 1926년 동경 상지대학 예과에 입학하였고 수필집 「무서록」, 글쓰기 안내서인 「문장강화」, 단편집 「돌다리」, 「복덕방」, 장편소설 「사상의 월야」, 「별은 창마다」 등을 발표했다. 1946년 월북 이후로 생사가 불분명하다.

### 3.1 이태준의 장소

#### ○ 수연산방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26길 8(성북동 248번지)

수연산방(壽硯山房)은 ‘문인이 모이는 산속의 집’이란 뜻이다. 구인회에서 김기림, 정지용, 박태원, 이상 등과 교류했던 이태준이 1933년부터 1946년까지 거주하며 단편 〈달밤〉, 〈돌다리〉, 중편 〈코스모스 피는 정원〉, 장편 〈황진이〉, 〈왕자호동〉 등 주요 작품을 쓴 장소로서 의미가 크다.



그림 2-13 수연산방에서 이태준과 가족

수연산방을 이루는 세 개의 누각에 죽향루(竹香樓), 문향루(聞香樓), 상심루(賞心樓)라는 이름을 지어 붙였다.

이태준의 단편 「달밤」에는 작가가 성북동에 대해 묘사한 부분이 나온다. 직접 지은 이 집에서 1946년 월북하기 전까지 머물며 많은 작품을 남겼다.

성북동으로 이사 나와서 한 대엿새 되었을까, 그날 밤 나는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 던지고 누워 새삼스럽게,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

하였다. 무어 바깥이 컴컴한 걸 처음 보고 시냇물 소리와 싸- 하는 솔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가 아니라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곧 못난이란 것이 드러났다. 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만 지름길들보다 더 나에게 성북동이 시골이란 느낌을 풍겨 주었다.

이태준, 「달밤」

이태준은 무서록에 실린 「성」에서 서울 성곽에 대해 썼다. 지금의 성북동 수연산방에 살면서 심우장 뒤 말바위 능선을 따라 이어진 성곽을 바라보면서 쓴 글로 짐작된다.

아침마다 안마당에 올라가 칫솔에 치약을 문혀들고 돌아서면 으레 눈은 건너편 산마루에 끌리게 된다. 산마루에는 산봉우리 생긴 대로 울렁울렁 성벽이 솟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여 있다. 솟은 성벽은 아침이 첫 화살을 쏘는 과녁으로 성북동의 광명은 이 산상의 옛 성벽으로부터 퍼져 내려오는 것이다. 한참 쳐다보노라면 성벽에 드리운 소나무 그림자도, 성(城)돌 하나하나 사이도 뻗히 드러난다. 내 칫솔은 내 이를 닦다가 성돌 틈을 닦다가 하는 착각에 더러

놀란다. 그러다가 찬물에 씻은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면 성벽은 역시 조광(朝光)보다는 석양의 배경으로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을 느끼곤 한다.

저녁에 보는 성곽은 확실히 일취이상(一趣以上)의 것이 있다. 풍수(風水)에 그을린 화강암의 성벽은 연기어린 듯 자욱한데 그 반허리를 끊어 비낀 석양은 햇빛이 아니라 고대 미술품을 비추는 환등빛인 것이다.

나는 저녁 먹기가 아직 이른 때면 가끔 집으로 바로 오지 않고 성(城) 터진 곳에서 백악순성로(百岳巡城路)를 한참씩 올라간다.

이태준, 「무서록」

이태준은 세 개의 누각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 중 하나가 지금은 사라진 상심루(賞心樓)이다.

여러 해 별려 초려(草廡) 한 칸을 지어놓고 공부할 책권(冊卷)과 눈을 쉬일 서화 몇 폭을 걸어놓고 상심루(賞心樓)란 현판을 얻어 걸어놓은 지 이미 7, 8년. 그러나 하루를 누(累) 없이 상심낙사(賞心樂事)한 적이 별로 없다.

이태준, 「무서록」



그림 2-14 찾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연산방

수연산방은 현재 이태준의 외종 손녀가 찾집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비몽’, ‘닥터깡’ 등의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지로 대중에게 알려졌다.

### 3 2 이태준의 장소 동선

이상의 집 ~ 제비다방 터 ~ 박태원의 다옥정 7번지 생가 터(청계천 광통교 근처) ~ 수연산방

문학사에서 이태준과 이상, 박태원의 교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들의 관련 장소를 하나로 묶는 것은 사람과 예술의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장소를 연결하는 문학 동선이 될 것이다. 긴 시간 동안 여유롭게 도보로 이동할 수도 있겠고 중간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3 3 이태준의 장소 테마 활용

이태준은 당시 순수문학을 지향하는 구인회를 이끌었고 대표적인 문예지 ‘문장’을 창간하였다. 이상, 박태원 등과도 제비다방에서 문학적인 교류를 하였는데 『조선중앙일보』에 있으면서 정지용의 청탁을 받아 이상의 「오감도」와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연재할 당시 학예부장을 맡고 있었다. 문학사에서 실험적인 두 작품을 지지하고 연재하는데 이태준이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이상은 당시 화명 하용으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삽화를 그리기도 했다. 현재 이들이 교류하였던 제비다방의 흔적은 없다. 수연산방이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학사적 연결고리를 보여줄 수 있도록 찾집의 한편에 이태준의 저서 및 이상과 박태원의 관련 도서를 전시 열람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개념의 자리를 마련하면 좋을

것이다. 이태준의 문학 동선은 수연산방 당호의 뜻이 그렇듯 함께 교류했던 이상의 「오감도」나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등을 같이 모아 볼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나 북카페 테마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박태원(1909-1986)

박태원은 1909년 서울에서 출생하였으며 필명은 구보(丘甫)·구보(仇甫)·구보(九甫)이다. 경성제일고보, 도쿄 호세이 대학 예과를 중퇴하였다. 1926년 『조선문단』에 시 「누님」이 당선, 1930년 『신생』에 단편 「수염」을 발표하였으며, 1933년 구인회에 가담하였다. 박태원의 대표작으로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천변풍경」 등이 있고, 장편소설 「태평성대」, 「군상(群像)」, 「잡오농민전쟁」 등이 있다. 박태원은 1986년 7월에 사망하였다.

### 박태원의 장소

#### ○ 박태원의 집터

서울시 종로구 다동 7번지

박태원의 다옥정(다동) 7번지 집은 광교 부근에 그의 아버지가 운영 하였던 공애당약방을 포함하는 상가 건물이었다. 조이담에 의하면 공애당약방은 전면 폭이 좁고 위, 아래로 긴 모양(대략 7×26m)의 대지로, 55평(연 면적 70평) 정도(약국 15평 내외)의 규모로 추정된다<sup>2</sup>.



그림 2-15 박태원 집터 다옥정(다동) 7번지 부근

박태원의 집터는 현재 광고 부근 한국관광공사 근처였으나 청계천과 도로로 바뀌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 광통교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광통교는 길이 12미터, 폭 15미터 크기로 조선시대 도성 안에서 가장 큰 다리였다. 1958년 청계천 복개 공사를 하면서 도로 밑에 묻혔다.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과 중구 다동을 잇고 있으며 교통의 흐름을 막지 않기 위해 원래 위치에서 상류 쪽으로 옮겨 복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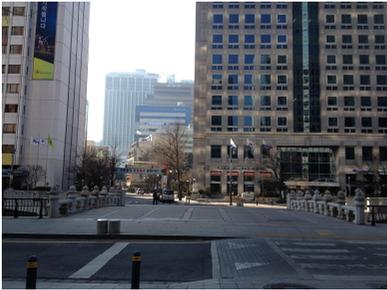


그림 2-16 청계산 상류 쪽에 복원된 광고

박태원은 광통교 너머 다옥정 7번지에 살면서 장편 「천변풍경」에서 청계천 주변 일대를 묘사한다.

자정이나 되어 천변에는 행인이 드물다. 이따금 기생을 태운 인력거가 지나가고, 술 취한 이의 비틀걸음이 주위의 정적을 깨뜨릴 뿐, 이미 늦은 길거리에는, 집집이 문들은 굳게 잠겨 있다. 다만, 광고 모퉁이, 종로은방 이층에, 수일 전에 새로 생긴 동아구락부라는 다맛집과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난 뒤, 점안을 치우기에 바쁜 이발소와 그때를 만난 평화카페가 잠자지 않고 있을 뿐

으로, 더욱이 한약국집 함석 빈지는 외등 하나 달지 않은 처마밑에 우중충하고 또 언짢게 쓸쓸하다.

박태원, 「천변풍경」

○ 화신백화점

서울시 종로구 종로 51

화신백화점은 1931년 9월 15일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백화점이다. 서울시 종로2가에 위치하였으며 미곡상으로 자본을 축적한 박흥식이 신태화가 운영하였던 화신상회를 36만 원에 인수하여 화신백화점으로 개업하였다. 후에 화신상회 동쪽에 위치한 동아백화점을 인수하여 동-서양관으로 운영되었다. 서관은 화재가 발생하여 건축가 박길룡의 설계로 신축되었다. 1987년 종로 도로 확장 계획에 따라 철거되었다.

박태원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과 천변풍경에서 화신상회와 화신백화점을 통해 당시 사회를 묘사한다.

그래도, 구보는, 약간 자신이 있는 듯싶은 걸음걸이로 전차 선로를 두 번 횡단하여 화신상회 앞으로 간다. 그리고 저도 모를 사이에 그의 발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기조차 하였다.

젊은 내외가, 너털 살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그들의 오찬을 즐길 것이다.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백화점 식당은 원래 그리 불행하다거나, 슬프다거나 그러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평온무사하게 보낼 수 있었던 사람, 얼마간이라도 행복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던 사람, 그러한 이들이, 더러는 아내를 동반하

고, 또는 친구와 모여서,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자녀들을 이끌고, 결코 오랜 시간을 유난스럽게 즐기기에 적당치 않은 이곳을 찾아온다.

박태원, 「천변풍경」

당대 대표적인 조선인 건축가였던 박길룡이 설계한 화신백화점이 철거된 자리에는 건축가 라파엘 비놀리(Rafael Viñoly)가 설계한 종로타워가 신축되었다. 국세청이 독점하였으나 현재는 삼성의 금융자회사 및 식당가가 있다.



그림 2-17 원래 위치의 광고와 종로타워

○ 정동길

소설 「애욕」은 박태원이 친구 이상과 금홍을 모티프로 쓴 소설이다. 소설 속 주인공 하웅과 여자의 산책로는 대한문 ~ 중추원 ~ 경성재판소 (현재의 서울시립미술관) ~ 이화학당 ~ 경성방송국 ~ 이화여전(손탁호텔)이다.

올라가는 전차는 아직 있어도, 내려가는 전차는 이미 끊어졌다. 태평통 쪽을 향하여 정동 골목을 터덜터덜 내려오던 노동자는 건국문 앞에까지 와서 -그냥 건국문, 하면, 아는 이가 드물게다. 대한문 앞에서 덕수궁 돌담을 끼

고 정동 골목을 쭉욱 들어가노라면 아니 경성지방법원 맞은편 쪽에 있는 것은 용강문, 거기까지 가지 말고 바른편에는 전등 달린 전신주, 오른쪽에는 전등 안 달린 전신주 그 사이에 음침하게 울적하게 닫혀 있는 문이 바로 권극문이다.

‘마침 지나는 이화여고보 정문에 달린 외등을 쳐다본 여자는, 혹은, 남자나 마찬가지로 그 밝음을 저주하였는지도 모른다. …(중략) 정동 13번지, 양인의 집 외등에는 전구가 없었다. 까닭에 그 맞은편 전신주에 달린 전등은 그들에게는 좀 더 원망스러운 것임에 틀림없었다. …(중략) 마침내 그들은 이화여자전문학교 정문 앞에까지 왔다. 역시 전신주에 달린 전등이, 또 맞은편 노서아 영사관의 외등이, 남자를 잠시 주저하게 하였으나, 그러나 이 골목에서 어둠을 찾는 것이 절망임을 아는 그는, 용기를 내어 여자를 이화여전 정문 지붕 밑으로 이끌려 하였다.’

박태원, 「애육」

## ○ 한강

태백산맥 검룡소에서 발원하여 동에서 서로 강원도·충청북도·경기도·서울특별시를 거쳐 황해로 흘러 들어가는 한강은 박태원 문학 속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았노라고 한 외손자인 영화감독 봉준호의 영화 <괴물> 속에서도 소시민의 삶이 묘사되어 있는 터전으로서 의미가 있다.

인생에 피로한 자여! 겨울 황혼의 ‘한강’을 찾지 말라.

죽음과 같이 냉혹한 얼음장은 이 강을 덮고, 모양 없는 산과 별에 잎 떨어진 나뭇가지도 쓸쓸히, 겨울의 열없는 태양은 검붉게 녹슬어 가는 철교 위를 넘지 않는가……?

나는 그곳에 인생의 마지막-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으로는 당치 않은 어수

선하고 살풍경한 풍경을 발견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강가에 스무 명도 더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주에 얼음 깨는 기구를 가지고, 수건으로 머리를 질끔 동이고 있는 사람이 섞여 있었다. 순사가 두 명 무엇인지 그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나의 낮세밖에 안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두 명의 순사가 지휘하는 대로 그대로 그들은 움직이었다. 두 명의 순사 중에, 한 명은 외투를 입고 있었다. 동정에 여우털을 단 외투를 입고 있으면서도, 그 순사는 어인 까닭인지 시퍼런 코를 흘리고 있었다. 나는 나의 이십오 년 평생에 시퍼런 코를 흘리는 순사를 그에게서 비로소 발견하였다.

인도교와 거의 평행선을 지어 사람들의 발자국이 줄을 지어 얼음 위를 거뭇게 색칠하였다. 인도교가 어엿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얼음 위를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었나? 그들은 그만큼 그들의 길을 단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무슨 크나큰 일이 있었던 것일까……?

나는 그들의 고무신을 통하여, 짚신을 통하여, 그들의 발바닥이 감촉하였을, 너무나 차디찬 얼음장을 생각하고, 저 모르게 부르르 몸서리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가방을 둘러멘 보통학교 생도가 얼음 위를 지났다. 팔짱 낀 사나이가 동저고리 바람으로 뒤를 따랐다. 빵장수가 통을 둘러메고 또 뒤를 이었다. 조바위 쓴 아낙네. 감투 쓴 노인…… 그들의 수효는 분명히 인도교 위를 지나는 사람보다 많았다.

강바람은 거의 끊임없이 불어왔다. 그 사나운 바람은 얼음 위를 지나는 사람들의 목을 움츠리게 하였다. 목을 한껏 움츠리고 강 위를 지나는 그들의 모양은 이곳 풍경을 좀더 삭막하게 하여 놓았다.

나는 그것에 나의 마지막 걸어갈 길을 너무나 확실히 보고, 그리고 저 모르게 악연하였다…….

박태원, 「피로」

○ 낙랑파라

지금의 프라자 호텔 부근

1930년대 장곡천정(소공동)에서 가장 유명했던 다방으로 동경미술 대학을 졸업한 이순석이 열었다<sup>3</sup>. 2층 건물로 아래층은 킷다점, 위층은 아틀리에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상·박태원·김기림·김소운·구본웅 등 당대 예술가들이 단골이었다. 당대 문화예술인의 교류 장소와 문화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다.

나는 다시 다방 낙랑 안 그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두 가닥 커튼이 나의 눈에서 그 살풍경한 광고 등을 가리어 주고 있다. 이곳 주인이 나를 위하여 걸여 증 엔리코 카루소의 '엘레지'가 이 안의 고요한, 너무나 고요한 공기를 가만히 흔들어 놓았다.

박태원, 「피로」



그림 2-18 장곡천정(소공동)

3 동경미술학교를 마친 뒤 한동안 화신상회에서 만흔 보수를 받으며 쏘-윈도리 뗏산을 그리며 주든 화가 이순석씨의 경영이다. 장소는 경성부청의 백약 5층루를 마조 선 장곡천정 초입에 있다. 서반아(西班牙)에나 온 듯 남국의 파초(芭蕉)가 문 밖계 푸르고 잇는 3층루다 [실제로는 2층]. 위층은 아토리(화실)요 아래가 킷다점(喫茶店)이다(킷다점탐방기, 『삼천리』제6호, 1934년 5월 1일, 조이담·박태원, 「구보씨와 더불어 경성을 가다」에서 재인용).

현재 낙랑파라가 있던 프라자 호텔 부근 소공동 112-20번지에 ‘숲 커피 플라워’라는 카페가 있다.

○ 독립문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9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는 돌문으로, 서재필을 중심으로 한 독립협회가 우리나라의 영구 독립을 선언하기 위하여 국민의 헌금으로 영은문을 헐고 그 자리에 세운 것으로 광무 2년(1897)에 완공하였고 1979년 지금의 위치로 옮겼다.

감영(監營)앞에서 독립문까지 사이에 구뚝방이라고는 모두가 넷밖에 없다. 서측에 하나 동측에 셋……. 적십자병원을 지나서 맨 처음으로 다닥치는 구뚝방이 아침 일곱점 사십분에 마약 문을 열어 놓고 주인은 안에서 세수를 하려니까 기침 소리가 나며 누가 문으로 들어와 다 낚은 의자가 털썩 주저앉는다.

박태원, 「낙조」

42 박태원의 장소 동선

○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동선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다옥정 집을 나선 구보의 동선을 따라가면 광고 ~ 종로 ~ 화신상회 ~ 조선은행 앞 ~ 경성역 ~ 종로경찰서 옆 다방 ~ 종각 뒤의 술집 ~ 낙원정 카페 ~ 종로 네거리 집 ~ 장곡천정(소공동) ~ 조선히텔의 티룸 ~ 낙랑파라로 이어진다.

○ 「애육」의 이상과 금홍의 산책로 동선

박태원이 친구 이상과 금홍을 모티프로 쓴 「애육」에서 주인공의 산

책로는 정동으로 대한문 ~ 중추원 ~ 경성재판소(현재 서울시립미술관) ~ 이화학당 ~ 경성방송국 ~ 이화여전(손탁호텔)이다.

#### 43 박태원의 장소 테마 활용

박태원은 모데르놀로지[Modernology, 현대(modern)와 고고학(archeology)의 합성어]인 고현학에 열중하여 당시 풍속과 세태를 면밀히 묘사하였다. 대표적인 소설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로 1934년 8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조선중앙일보』에 연재되었다. 변화가 격심한 현대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일은 미래를 위하여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속의 장소 변화를 특정한 시기를 정하여 주기적으로 기록하고 그 기록이 쌓인다면 의미 있는 미래 유산이 될 것이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 연재되었던 기간과 같은 일정에 소설 속 동선을 따라 걷기, 낭독회 등 문학 축제의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 5 이상(1910-1937)

이상은 1910년 9월 23일 서울 통인동 154번지에서 출생하였다. 1929년 경성고등보통학교(서울공대 전신) 건축과를 졸업하였으며 1930년 잡지 『조선』에 처녀장편 「12월 12일」을 연재하였다. 1931년 일어로 쓴 시 「이상한가역반응」을 『조선의 건축』에 발표하고, 시 「오감도」, 소설 「날개」 등 다수의 창작을 발표하였다. 이상은 1937년 일본 동경제대 부속병원에서 28세의 일기로 요절하였다.

### 5.1 이상의 장소

#### ○ 이상의 집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7길 18(통인동 154-10)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에 위치한 ‘이상의 집’은 이상이 3살부터 23살까지 살았던 집 ‘터’의 일부에 자리한 문화공간이다. 이 가옥은 그가 실제 살았던 집은 아니지만 이상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는 유일한 장소로서 의미를 지닌다.



그림 2-19 이상의 집 1(건축가 장영철 설계)



그림 2-20 이상의 집 2(건축가 김지은 설계)

2009년에 문화유산국민신탁이 첫 보전재산으로 매입하였으며, 현재 재단법인 아름지기가 관리 운영하고 있다.

이상의 집에서 문학은 물론 음악, 건축 등 각 분야의 예술가가 이상을 기억하는 공연, 전시, 강연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황현산, 신형철 등 이상 문학에 대해 탁월한 비평을 해오고 있는 문학 평론가들과 김민수 서울대 디자인학부 교수의 강연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였다.



그림 2-21 서울대 김민수 교수 강연



그림 2-22 문학평론가 신형철 강연

- ‘오감도’의 독서를 위하여-이상과 초현실주의’/황현산(고려대 명예 교수)  
2013.2.23
- ‘짜퉁 근대의 살해자, 이상, 그의 삶과 예술’/김민수(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교수) 2014.10.25
- ‘이상한 사랑의 실험’/신형철(문학평론가,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2014.11.22

○ 신명학교(현 배화여고)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1길 34(배화여고)

1917년(8세) 이상이 구본웅을 동기생으로 만났던 신명학교는 현재 배화여고 자리에 있었다. 구본웅은 김해경에게 스케치 박스를 선물 하면서 ‘이상’이란 필명을 만들어 준 친구였다. 두 사람의 교류가 처음 시작된 곳으로서 의미가 있는 장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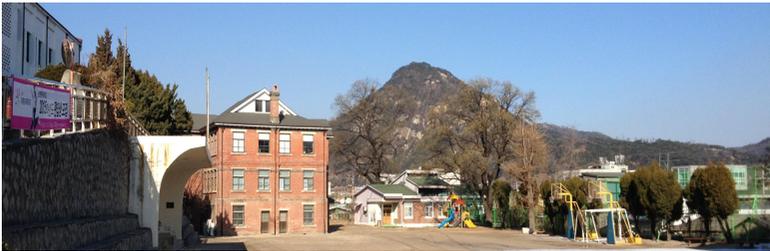


그림 2-23 신명학교 터(현 배화여고)

저기는 참 오래간만에 가본 것입니다. 누가 거기를 가보라고 그랬나 모릅니다. 딱 변했습니다. 그 전에 사생寫生하던 다리 아치가 모색暮色 속에 여전하고 시냇물도 그 밑을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양 언덕은 잘 다듬어서 중간중간 연못처럼 물이 괴었고 자그마한 섬들이 아주 세간처럼 조출하게 놓여 있습니다. 게서 시냇물을 따라 좀 올라가면 졸업기념으로 사진을 찍던 목교木橋가

있습니다. 그 시절 동무들은 다 뿔뿔이 헤어져서 지금은 안부조차 모릅니다.

이상, 「슬픈 이야기」

○ 사직공원 산기슭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산1-10(사직근린공원)

1936년 6월 『중앙』에 발표한 이상의 단편소설 「지주회시」는 사직  
공원 산기슭을 오르는 주인공이 나온다.

‘지주’란 거미를 의미하며 원래 ‘지주(蜘蛛)’로 표기해도 될 것을 이상은 굳  
이 ‘지주(●蠶)’로 표기한다. 그것은 일종의 현학 취미라기보다는 낯설게 하  
기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문장 표기상에 있어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소설은 ‘회시(會豕)’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거미와 돼지가 만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소설 속에서는 ‘오’군이 돼지 같은 존재로 묘사되며, ‘나’의 아내는 거미 같  
은 존재로 묘사된다. 이 소설은 그런 점에서 ‘오’군과 ‘나’의 아내, 그리고 마  
유미 사이에 벌어지는 희극적인 삶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권영민,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아직 싹트지 않은 이른 봄 건강이 없는 그는 오와 사직공원 산기슭을 같이 걸으  
며 오가 긴히 이야기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너무나 뜻밖의 일은……  
오의 아버지는 백만의 가산을 날리고 마지막 경매가 완전히 끝난 것이 바로 엊그  
제라는……여러 형제 가운데 이 오에게만 단 한 줄기 촉망을 두는 늙은 기미호걸  
의 애틍는 글을 오는 숙주머니에서 꺼내 보이고……저버릴 수 없는 마음에……  
오는 운다……우리 일생의 일로 정하고 있던 화필을 요만일에 버리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는……전에도 후에도 한 번밖에 없는 오의 종종한 고백이었다.

이상, 「지주회시」



그림 2-24 사직공원 산기슭

- 경성역 티룸(옛 서울역사)  
 서울시 중구 통일로 1번지(봉래동 2가 122-28)  
 1925년에 지어진 옛 서울역사는 80여 년간 서울의 관문이었다. 그러나 2004년 고속철도 KTX 개통과 더불어 새로 지은 역사(驛舍)를 사용하게 되면서 더 이상 기차의 기능은 사라지게 되었다. 옛 서울역사는 한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2011년 내부 복원공사를 마친 뒤 ‘문화역서울 284’라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문화역서울 284’라는 이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명칭공모전을 통해 선정했으며, 문화 네트워크의 중심 역이자, 서울이라는 지역성, 사적 284호로 지정된 국가문화재 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어쨌든 나셨다. 나는 좀 야맹증이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밝은 거리로 돌아다니기로 했다. 그리고는 경성역 1, 2 등 대합실 한결 티룸에 들렀다. 그것은 내게는 큰 발견이었다. 거기서 우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안 온다. 설사 왔다가도 곧 돌아가니까 좋다. 나는 날마다 여기 와서 시간을 보내리라 속으로 생각하여 두었다.

제일 여기 시계가 어느 시계보다도 정확하리라는 것이 좋았다. 선불리 서투른 시계를 보고 그것을 믿고 시간 전에 집에 돌아갔다가 큰코를 다쳐서는 안

된다. 나는 한 박스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주앉아서 잘 끓은 커피를 마셨다. 총총한 가운데 여객들은 그래도 한 잔 커피가 즐거운가 보다. 얼른얼른 마시고 무얼 좀 생각하는 것같이 담벼락도 좀 쳐다보고 하다가 곧 나가 버린다. 서글프다. 그러나 내게는 이 서글픈 분위기가 거리의 티 룬들의 그 거추장스러운 분위기보다는 절실하고 마음에 들었다. 이따금 들리는 날카로운 혹은 우렁찬 기적 소리가 모차르트보다도 더 가깝다. 나는 메뉴에 적힌 몇 가지 안되는 음식 이름을 치읽고 내리읽고 여러 번 읽었다. 그것들은 아물아물하는 것이 어딘가 내 어렸을 때 동무들 이름과 비슷한 데가 있었다.

이상, 「날개」

현재 ‘문화역서울 284’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주요무대이자 교통과 교류의 관문이었던 구 서울역을 원형 복원한 후, 다양한 문화예술이 창작되고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다양한 생활문화의 생산거점이자 철로가 가진 네트워크로 연계되는 문화역으로서 대안적이고 실험적인 전시, 공연, 강연, 연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sup>4</sup>.



그림 2-25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화역서울 284

4

문화역서울284 홈페이지([www.seoul284.org](http://www.seoul284.org))

○ 미쓰코시 백화점

서울시 중구 소공로 63

1930년 완공되어 미쓰코시 경성점으로 개점되었으며 미쓰코시 건축사무소의 하야시 고헤이(林幸平)가 설계했다. 해방 이후 국유화되어 1945년 12월 동화백화점(東和百和店)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한국전쟁 당시 미군 PX 건물로 이용되었다.

1963년 삼성이 인수한 신세계백화점 본점이다. 이상의 금홍의 이야기를 담은 자전적인 소설 「날개」 속의 주인공과 김수근을 모델로 그린 박완서의 소설 「나무」의 주인공이 미군 초상화를 그리던 곳이다.

나는 어디로 들입다 쓰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시간 후에 내가 미쓰코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나는 거기 아무 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 온 스물 여섯 해를 회고하여 보았다. ...이때 뚜우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 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이상, 「날개」



그림 2-26 미쓰코시 백화점 옥상정원과 카페



그림 2-27 신세계백화점 본점 옥상정원과 카페

미쓰코시 백화점은 현재 신세계백화점 본관이다. 현재에도 옥상정원이 있으며 카페와 야외 조각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야외 조각 공원인 트리니티 가든에는 제프 쿤스의 ‘세이크리드 하트(Sacred Heart)’ 외에도 루이스 부르주아, 알렉산더 칼더 등 유명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카페에는 미국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에서 주인공 캐리가 “뉴욕 최고의 디저트 숍”이라 외치던 ‘페이야드’가 입점해 있다.

○ 제비다방(1933)

당시 종로경찰서 근처 조선광업소 1층(현 종로 44번지 스탠다드차타드 본점 옆 ‘그랑팔레’ 일대로 추정)

1933년경 종로에서 문을 연 다방 ‘제비’는 이상이 당시 24세에 폐결핵으로 황해도 백천 온천에서 요양을 하다 알게 된 기생 금홍과 함께 운영하였다. 당시 제비에는 이태준, 박태원, 김기림 등 구인회의 문인들이 출입하였으며, 이상의 문단 교류가 이곳에서 이루어졌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이다.



그림 2-28 제비다방 근처로 추정되는 위치

총독부(總督府)에 건축기사로도 오래 다닌 고등공업(高等工業)출신의 김해경씨(金海卿氏)가 경영하는 것으로 종로(鍾路)서 서대문(西大門) 가느라면 10여 집 가서 우편(右便) 페-부먼트 옆에 나일강반(江畔)의 유객선(遊客船)가치 운치 있게 빗겨 선 집이다. 더구나 전면 벽은 전부 유리로 깔았는 것이 이색이다. 이러케 종로대가(鍾路大家)를 옆에 끼고 안젓느니 만치 이 집 독특히 인삼차나 마시면서 바깥을 내이다 보느라면 유리창 너머 페이부먼트 우로 여성들의 구두발이 지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그림을 바라보듯 사람을 황홀케한다. 육색(肉色) 스탁킹으로 짙 가늘고 긴- 각선미의 신녀성(新女性)의 다리 다리 다리- 이 집에는 화가, 신문기자 그리고 동경(東京) 대판(大阪)으로 유학하고 도라와서 할 일 업서 양다(洋茶)나 마시며 소일하는 유한청년(有關靑年)들이 만히 다닌다. 봄은 안 와도 언제나 봄기분 잇서야 할 제비. 여러 꺾다점(喫茶店) 중에 가장 이땅 정조(情調)를 잘 나타낸 「제비」란 일홈이 나의 마음을 몹시 끄은다.

「꺾다점 평판기」 삼천리 제6권 제5호, 1934년 5월 1일

○ 이상과 변동림의 신혼집(1936. 6.)

서울시 종로구 다동 33번지

이상이 변동림과 결혼하여 산 신혼집은 구보 박태원과 구본웅의 집과도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 위치이다.



그림 2-29 이상과 변동림의 신혼집터(현 예금보험공사)

○ 보성고보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4번지

보성고보는 이상이 서양화가 고희동에게서 그림을 배운 장소이다.  
현재 보성고보 흔적은 없고 그 자리에 조계사가 있다.



그림 2-30 보성고보 터(현 조계사)

## 이상의 장소 동선

### ○ 이상의 서촌 동선

이상의 집 ~ 구본웅 생가 ~ 신명학교 ~ 사직공원 산기슭

이상은 사직동에서 태어나 통인동 백부의 집에서 짧은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고 작품 속에서도 서촌의 장소들을 언급하고 있다.

### ○ 이상의 정동 산책 동선

대한문 ~ 중추원 ~ 경성재판소(현 서울시립미술관) ~ 이화학당 ~ 경성방송국 ~ 이화여전(손탁호텔)

이상의 친구였던 소설가 구보 박태원은 자신의 소설 「애욕」 속의 주인공 하옹이 현실의 이상이었다고 「이상의 비련」이란 글에서 밝힌다.

이상을 아는 이들은 모두, 하옹이 이상에 틀림없다고 단정들을 하여 버렸다. 그것은 그럴밖에 없는 것이, 작품 속에 나온 하옹의 다방은, 현실에 있어, 이상의 다료(茶寮) '제비'와 그 위치는 물론 실내장식에 있어서까지 흡사하였다. 마르고 키 큰 몸에 어지러운 머리터럭과 면모(面毛)를 게을리 한 얼굴에 잡초와 같이 무성한 수염이며, 심심하면 손을 들어 맹렬한 형세로 코털을 뽑는 버릇에 이르기까지, 「애욕」 속의 하옹은 현실의 이상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것이다. 그래 벗들은 이상을 보고 물었다.

“그 모던 걸하고 요새도 자주 만나시요?”

그러면 이상은 대답하였다.

“무어? 「애욕」말씀이로구려?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구보 얘기로. 하옹이라는 것이 실상은 구보요, 하옹을 바루 충고하여 주고 나무라고 그러는 구보란 인물이 사실은 나 이상ियो.”

그래, 벗들은 이번에는 소설가 구보인 나에게 물었다.

“이상은 이처럼 말하는데, 참말 진상은 어찌 된 것이오?” 그때마다 나는 언명하였다. “그건 괜은 말이오. 하용은 역시 이상에 틀림없소.” 그러나 이제 고백을 하자면 「애육」 속의 하용은, 이상이며 동시에 나였고, 그의 친구 구보는 나면서 또한 이상이었던 것이다.

박태원, 「이상의 비련」, 깊은샘

○ 이상의 사라진 장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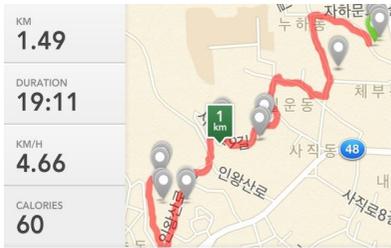
보성고보(현 조계사) ~ 화신백화점 ~ 제비다방 ~ 변동림과 머물던 신희집 국내 최후 거주지(다동 33번지 현 예금보험공사)

이상이 화가 고희동에게서 그림을 배웠던 보성고보, 경성공업전문학교 선배이자 조선총독부 기수 선배로서 함께 일했던 박길룡이 설계한 화신백화점, 동료 문인들과의 문화적인 교류 장소였던 제비다방, 변동림과의 신희집 등은 흔적 없이 모두 사라졌다. 이렇게 사라진 장소 중에 한 예술가의 삶에서 중요한 시간의 흔적이었던 곳이 있다. 법규로서 제한을 두는 것은 어렵겠지만 특정한 장소에 건축물이 세워질 때 문화적인 검토를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앞으로 중요할 것이다.

○ 이상의 환상 공간, 다방과 카페

소공동서울역 미쓰코시 백화점 옥상정원(현 신세계백화점) ~ 낙랑파라 ~ 옛 경성역 티룸(현 문화역 서울 284)

다방과 카페는 일상과는 다른 환상을 제공하는 장소였다. 이상의 문학과 현실 세계에서도 도피처이자 낙원이며 세계와 소통하는 공간이었다.



NOTES

이상의 집 ~ 신명학교(배화여고) ~ 사직공원 산기슭



NOTES

보성고보~제비~다동신혼집~미스코시~낙랑파라~서울역



그림 2-31 이상의 서촌 동선

그림 2-32 사라진 이상의 장소 동선

53 이상의 장소 테마 활용

이상의 삶과 문학 속의 동선을 지역별로 나누어 이상의 길을 발견한다. 이상의 삶과 문학 속의 특정 장소에서 문학 외 타 장르 예술과의 교류를 시도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특정기간 동안 축제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통인동 이상의 집(1)은 장영철 건축가(와이즈건축)의 설계로 임시로 개방해 왔다. 그 후 이상의 집(2)는 건축가 김지은(SWAA)의 설계로 리노베이션되었으며 서울시 건축문화상을 수상하였다. 이상은 조선총독부 건축 기사로 3년여간 일을 한 적이 있다. 이때 감리를 한 건물의 일부로 서대문 옛 전매국 건물이 있다. 건축 콘텐츠와 이상의 삶은 중요하게 맞닿아 있다. 작품 속 내용과 형식에서도 건축을 다루는 이의 시각이 표현되어 있다. 건축과 관련된 주제로 이상을 호출하고 현재와 교감할 수 있으리라 본다. 2014 베니스 건축비엔날레의 한국관 주제는 '오감도'로 이상의 동일 시에서 빌어오기도 했다.

## 백석(1912-1996)

백석은 1912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출생하였으며 본명은 기행(夔行)으로, 오산중학과 일본 도쿄 아오야마 학원을 졸업하였다. 1935년 시 「정주성」을 조선일보에 발표하였고 1936년 시집 『사슴』을 간행하였다. 방언을 즐겨 쓰면서도 모더니즘을 발전적으로 수용한 시들을 발표하였다. 「통영」, 「고향」, 「북방에서」, 「적막강산」 등 대표작은 토속적이고 향토색이 짙은 서정시들이다.

### 6.1 백석의 장소

#### ○ 길상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323

길상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사찰로 삼각산 남쪽 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고급요정 '대원각'을 운영하던 김영한(법명 길상화)이 대원각을 법정 스님에게 시주하여 탄생하였다. 사찰 내의 일부 건물은 개보수하였으나 건물 대부분은 대원각 시절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경내에는 극락전, 범종각, 일주문, 적묵당, 지장전, 설법전, 종무소, 관세음보살석상, 길상화불자공덕비 등이 배치되어 있다.



그림 2-33 길상사

길상사는 백석이 자야라 이름 지어준 연인 김영한 소유의 대원각을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읽고 감명 받아 시주하여 절로 만들어졌다. 1997년 김영한은 법정 스님으로부터 염주 한 벌과 길상화(吉祥華)라는 불명을 받았다. 화장해서 눈이 많이 내리는 날 길상헌 뒤뜰에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백석 시인의 ‘나와 나타샤와 힌당나귀’ 시비와 함께 길상화불자공덕비가 마지막까지 거처하던 방 옆에 세워졌다. 법정 스님의 진영각에는 스님이 쓰던 나무 의자 등의 유품이 놓여 있다.



그림 2-34 진영각과 법정 스님이 쓰던 의자

대원각이 되기 전에 청암정이라는 별장이었던 이 건물은 건축가 황두진의 할아버지 황경환이 거주하기도 하면서 사설도서관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후에 황경환은 창경궁 내 장서각의 사서로 일하기도 하였다.

우리 할아버지 황경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덧붙여보겠다. 그 당시 분들치고 3·1 운동 때 옥고를 치루지 않은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집안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할아버지도 그런 일을 겪으셨다고 한다. 나중에 평양에서 고무공장을 하시며 큰돈을 버셨으나, 해방 전에 사업을 서울로 옮기려고 내

려오셨다. 나는 얼마 전 평양 출신의 귀순 건축가 김영성 선생과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었다. 집안의 원적지를 대니까 “거 이북에 계속 계셨으면 되게 성분 나뉠것구만”하며 웃으셨다. 그곳은 자본가들이 살던 지역이며, 지금은 공산당 고위 간부들이 거기에 산다는 것이다. 서울로 내려오신 할아버지는 전라도 갑부의 별장인 성북동의 청암장을 사서 거기에 살면서 친구와 함께 일종의 사설도서관을 운영하셨다. 그 집에서 해방을 맞았으나 그 기쁨도 잠시, 곧 남북이 갈리면서 이북의 사업기반을 모두 날리고 말았다. 결국 그곳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후 그 집은 유명한 요정 대원각이 되었다. 지금의 성북동 길상사가 바로 그곳이다. (중략)

사업기반을 잃으신 후 모든 것을 훌훌 털고 일생의 마지막 직업으로 택하신 것이 당시 창경원 장서각의 사서였다. 전쟁으로 엉망이 된 장서각의 도서들을 손질하고 정리해서 일반에게 공개하는 일을 하셨다고 한다. 당시 <조선일보> 논설고문이었던 이규태 선생과 인터뷰한 기사가 지금도 집안에 남아 있는데, “한때 직접 도서관을 운영했으니 장서각 사서가 된 것도 우연은 아니다”라는 할아버지 말씀이 실려 있다.

황두진, 「당신의 서울은 어디입니까?」



그림 2-35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 시비와 길상화불자공덕비

○ 공평동 태서관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78

백석의 첫 시집인 「사슴」은 100부 한정으로 출간되어 태서관에서 1936년 1월 29일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현재 태서관 자리는 흔적 없이 사라진 상태이다. 이상의 종생기에도 태서관이 나온다. 1938년 태서관에서 열렸던 「조선무속의 연구」출판기념회 사진 자료를 국립민속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그림 2-36 태서관

자료: 국립민속박물관

○ 백석이 살았던 집

백석이 살았던 집은 자야와 동거했던 청진동 집, 부모님과 살았던 서울 경성부 독두리 656번지(뚝섬 근처) 기록이 있지만 집의 흔적은 사라지고 없다. 또한 백석이 북에 머물 때 그의 친구 신현중에 대한 글을 조선작가동맹에 쓰면서 “그의 집도 내 집도 북악산 가까이에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다(404쪽). 백석 평전 94쪽에는 기관지 <문학신문>이라고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일보 재직 시 북악산 가까이 종로 부근에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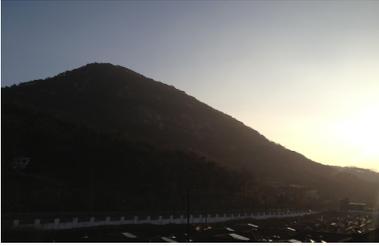


그림2-37 북악산

○ 통영

백석은 통영의 란이란 여인을 흠모하여 세 번이나 통영을 방문하여 시를 남겼고 마지막 통영길에서 청혼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통영은 백석이 그의 사랑이 머물고 그에 대해 노래한 도시로서 의미가 있다. 백석과 관련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테마 여행 루트로서의 거점이 될 만하다.

6.2 백석의 장소 동선

○ 북악산과 길상사

북악산 ~ 길상사

백석과 관계된 장소는 현재 서울에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는 재북 시인이기도 했고 그 이유로 오랫동안 남한에서도 잊혀져 있었다. 서울에서 백석과 관련 있는 장소는 근처에 살았던 북악산과 연인 자야의 흔적이 남아있는 길상사를 잇는 길 위에서 찾을 수 있다.

○ 통영

서울 ~ 통영

통영에는 백석이 사랑했으나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여인  
란이 있었다. 백석이 방문하였을 당시 통영에 이르는 길은 굉장히  
멀었고, 교통편도 편리하지 않았다. 도시문자탐사단 버스 같은 예를  
참조로 특정 시점을 정하여 문학의 도시 답사 루트의 거점으로 서울  
과 통영을 이어볼 수 있을 것이다.

### 63 백석의 장소 테마 활용

백석은 사랑했던 사람과 관련된 시를 썼고 그 흔적은 문학 속에서 뿐  
만 아니라 특정 장소나 도시에 남아있다.

백석은 북에 머물 때 쓴 글에서 북악산에서 가까운 곳에 집이 있었다  
는 언급을 했다. 연인이었던 자야의 흔적은 도심 속의 절인 길상사  
에 남아있다. 백석의 문학 동선은 북악산 서울 성곽길과 길상사를  
연결하는 도심 속 트래킹 루트로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다.

서울과 통영을 잇는 문학 기행도 백석의 생일이나 「사슴」 출판일 등  
특정일을 기점으로 진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서정주(1915-2000)

서정주는 1915년 전북 고창에서 출생으로 호는 미당이다. 서울 중앙고등보통학교를 거쳐 1936년 중앙불교전문학교를 중퇴하였다.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벽」으로 등단하여 같은 해 김광균, 김달진, 김동리, 오장환 등과 동인지 『시인부락』을 창간하고 주간을 지냈다. 1941년 시집 『화사집』을 출간하였고 그 외에 시집으로는 『신라초』, 『질마재 신화』, 『서정주 시선』 등이 있다.

### 서정주의 장소

- 청서당(聽黍堂) 공덕동 살구나무집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01번지  
시인은 전북 정읍으로 직장을 따라 이사하고 당시 살던 흑석동의 집을 팔았다가 8·15 해방 이후 공덕동에 집을 얻어 살게 되었다. 이 집은 살구나무집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중국집 외상값도 ‘살구나무집 주인전’으로 오곤 해서 호주인 시인은 불만을 갖기도 했다고 한다. 1970년 3월 사당동(현 남현동) 봉산산방으로 옮길 때까지 이곳에 살았다.



그림 2-38 공덕동 시절 서정주 시인의 모습(봉산산방에 전시된 사진)

전복 정읍 군청의 고원자리 하나를 얻어 놓고  
 흑석동의 오막상어도 팔아버린 뒤라  
 옮겨갈 곳을 헤매던 중에  
 마포구 공덕동 301번지에  
 내 친구인 일본 시인 노리다께 미즈오의  
 허술한 셋집이 반채 내 차례가 돼  
 그리루 식구들을 데불고 들어가 살게 되었네.  
 여기는 그 전에는 두부집이었던가,  
 오래된 살구나무도 한 그루 서서 살고 있는  
 이조말식의 하급 기와집으로,  
 나는 여기서 1970년 3월까지  
 4반세기를 그래도 雨露를 가리고 살아내었지.

〈해방 바람에〉에서

그리하여 이 늙은 살구나무에 꽃과 열매가 다 없어져 버린 여름철에는 나는  
 고 허전하게만 되어버린 내 뜰에다가 잎사귀 사운거리는 소리가 시원한 우리  
 시골의 고 수수의 밭을 만들고, 사각, 사각, 사각…… 매양 소곤거리기만 하는  
 고 수수의 소리를 듣고 지내며, 宅號도 고 뜻으로 ‘聽黍堂’이라고 해두었는데,  
 이것은 물론 고 살구나무 귀신님의 기분에 잘 듣기 위해서 있었습쇼.

〈孔德洞 살구나무집과 宅號 聽黍堂〉에서

○ 서정주 시인의 집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1071-11번지

1970년 3월 10일 시인이 가족과 함께 사당 1동(현 남현동) 봉산산  
 방으로 이사하여 2000년 12월 24일 생애의 마지막까지 30년간 거  
 주하였던 곳이다. 부부가 직접 집을 짓는 동안 감리를 했다고 한다.

2011년 3월 개관하였다.

봉산산방(蓬蒜山房)은 ‘쑥과 마늘의 집’이란 뜻으로 곰이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웅녀가 되었다는 단군 신화에서 가져온 이름이다.

1970년 3월 10일

관악산이 눈앞에 바로 잘 보이는

사당 1동(현재의 남현동)이란 곳으로 이사하고

신축한 우리 집 이름을 蓬蒜山房이라고 했으니

이 뜻은 우리 겨레의 맨 처음의 어머니께서

원래는 곰이었다가 쑥과 마늘을 자시고 한동안 잘 참으셔서 좋은 처녀가 되어

우리 시조 단군을 낳으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부터는 쑥같이 쓰고 마늘같이 매운 일들을

더 잘 견뎌내야겠다고

그 마음을 철약하여 붙인 것이다.

〈관악산 蓬蒜山房〉에서

그리하여 이 관악산 밑의 내 집 봉산산방에서 내가

새로 시작한 일은

호주머니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여러 가지 꽃나무들과 여러 모양의 바윗돌들을 모아

이것들의 모양과 빛깔들을 늘 대조해 보며

조끔치라도 더 나은 조화를 이루게

배치해 보고 또 고쳐 배치해 보고 하는 일이었네.

사군자를 비롯해서 소나무, 모과나무, 살구와 감과 대추나무,

산사와 후박과 해당화, 군해당화, 등나무, 영산홍과

영산백(白)과 영산자(紫),

(중략)

이런 몇 해 동안의 내 몰입은  
그 뒤의 내 시상 구성에도  
은연중 작용했던 것 같네.

〈관악산 蓬蒜山房〉에서(※1988년 미당 시집 「팔할이 바람」 중에서)

미당 사후 10년 만에 미당 서정주의 집이 복원되면서 모교 동국대학교에 기증된 유품이 다시 시인의 집에 전시되고 있다. 벽돌 2층 양옥으로 전시실과 마당에 야외 쉼터가 있다. 전시실에는 시인이 마지막 마시던 맥주, 집을 지을 때 주고받은 공사 관련 영수증 및 수첩 메모, 시인이 입었던 한복과 양복 등도 전시되어 있다. 시인 생애의 마지막 집필 공간이라는 의미가 중요한 곳이다.



그림2-39 서정주 시인이 쓰던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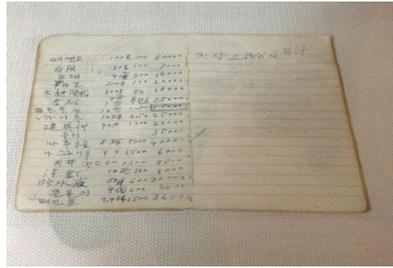


그림 2-40 봉산산방 공사비 관련 메모



그림 2-41 서정주 시인의 옷



그림 2-42 마지막으로 마시던 맥주

○ 중앙고보(현 중앙 중·고교)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164

미당은 1929년 3월 졸업공립보통학교를 우수한 학업성적으로 조기 졸업하고 중앙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당시 시험에 떨어져 보결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1929년 한국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과의 싸움으로 전국적인 학생 운동이 시작되었던 광주학생운동으로 종로서에 붙잡혀 갔다 훈방되기도 하였다. 그 후 광주학생운동 1주년을 맞아 학생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기도 하였다.

중앙고등학교는 3·1 운동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인촌 김성수, 중앙학교 교장 고하 송진우, 중앙학교 교사였던 기당 현상윤이 교장 사택에서 독립 운동 방안을 논의하였다. 중앙고등학교는 서정주뿐만 아니라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저항시인 이상화를 배출한 근대문학의 중요한 장소이다. 현재 자율형자립사립고등학교로 주말에만 내부 관람이 가능하다.

○ 보안여관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2-1

1936년 11월 서정주를 중심으로 함형수, 오장환, 김달진 등과 함께 2회에 걸쳐 발간된 시 전문지 『시인 부락』을 만든 곳이다. 서정주와 교류하던 이중섭도 보안여관에 머물며 작업했다고 한다.

그해 1936년 가을 함형수와 나는 둘이 같이 통의동 보안여관이라는 데에 거하면서 김동리, 김달진, 오장환 등과 함께 <시인부락>이라는 한 시의 동인지를 꾸려내게 되었다. 그때 내가 기초한 창간호의 편집후기에 보이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한 정신의 편향을 바라지 않고, 여러 지향들을 합해 이르는 한

심포니를 만들어보려 했던 만큼, 동인들의 정신지향은 자세히 보면 여러 갈래였지만, 사람의 기본 자격 그것을 주로 생각한 점에서는 누구나 모두 일치했던 것으로 본다. 이 기본자격을 향한 짙은 향수, 기본자격을 박탈당하는 이들의 울부짖음과 몸부림, 이 기본자격을 향한 벽찬 질주, 이런 것은 이 때 우리들에겐 한 불치의 숙명처럼 되었던 것이다.

서정주, 「천지유정」

1930년대 문을 연 보안여관은 2004년까지 여관이었다가 현재 메타로그 아트 서비스가 복합문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안여관 간판을 그대로 쓰며 공간의 성격만 갤러리 보안여관이 되었다. 기억이 사라져 가는 도시 서울에서 시인 서정주의 첫 시집인 화사집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된 공간이라는 의미가 크다.



그림 2-43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갤러리 보안여관

## 7.2 서정주의 장소 동선

- 중앙고등학교에서 보안여관까지

중앙고등학교 ~ 보안여관

시인의 초기 시의 장소는 30분 이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

- 시인의 집

공덕동 청서당 ~ 사당동 봉산산방

시인이 대부분의 삶을 집필활동으로 보낸 자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글로 남겨져 있다.

## 7.3 서정주의 장소 테마 활용

서정주는 산문과 시에서 자신이 살았던 공간이나 집필했던 장소에 대해 번지수까지 정확하게 남겨 기록하였다. 우선 그가 다녔던 중앙고보(현 중앙고등학교)와 첫 시집에 실린 시를 쓰며 머물렀던 보안여관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다. 시인이 살았던 집은 도보로 이동하기는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인의 집으로 가는 테마가 있는 시 티투어 버스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서정주의 문학 동선은 집필의 공간 테마로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윤동주(1917-1945)

윤동주는 1917년 12월 만주 북간도의 명동촌에서 태어났다. 1938년 연희전문 문과에 입학하고 1942년 봄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 릿쿄대학 영문과에 입학했으나 한 학기만 다니고 같은 해 가을, 교토의 도시샤 대학 영문과로 옮겼다. 1943년 7월 14일 독립운동 혐의로 일경에서 체포되어 이듬해 봄 징역 2년을 언도받고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1945년 2월 16일 새벽 순절하였다. 유고 시집으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있다.

### 윤동주의 장소

#### ○ 윤동주 문학관

서울시 종로구 창의문로 119(청운동 3-100)

윤동주 시인은 연희전문학교 시절 소설가 김송의 집에서 하숙을 하며 후배 정병욱과 자주 인왕산에 올랐다고 한다. 인왕산 자락에 버려진 수도가압장과 물탱크를 윤동주 문학관으로 조성한 이유이다.



그림 2-44 윤동주 문학관 외부

청운동 윤동주 문학관은 아틀리에 리옹 이소진 소장이 설계하였으며 서울시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하였다. 문학관에는 세 개의 전시실이 있다. 제1전시실에는 시인의 생가에 있는 우물을 옮겨와 전시하고 있으며 친필 원고 영인본과 사진 자료 등도 볼 수 있다. 제2전시실과 제3전시실은 원래 설계자가 건물의 구조 진단을 하던 중에 우연히 발견한 물탱크인데 물이 고여 있으면서 만들어진 시간의 흔적의 아름다움을 살리기 위해 재설계를 통해 탄생한 공간이다. 두 개의 탱크 중 하나는 ‘열린 우물’로 중정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닫힌 우물’로 어두운 공간이다. 닫힌 우물이라 불리는 공간인 제3전시실에서는 시인의 일생과 시 세계를 담은 영상을 볼 수 있다.



그림2-45 윤동주 문학관 ‘열린 우물’과 ‘닫힌 우물’

○ 윤동주 하숙집 터

서울시 종로구 누상동 9

윤동주 시인은 연희전문학교 시절 누상동에 있었던 소설가 김송의 집에서 연희전문 후배 정병욱과 하숙을 하며 자주 인왕산에 같이 올랐다고 한다. 정병욱은 윤동주의 유고 시집을 보관하여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하였던 중요한 인물이다. 현재는 다세대 주택으로 바뀌었고 윤동주 시인의 하숙집 터라는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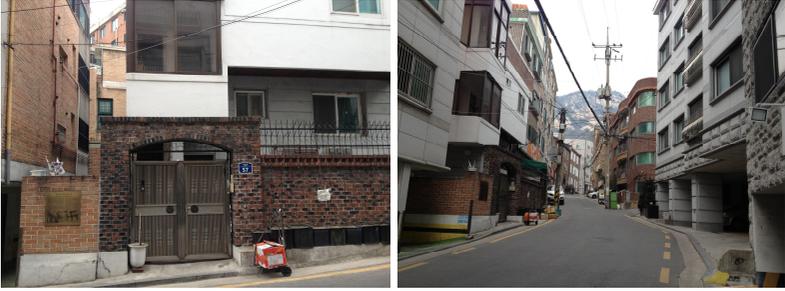


그림 2-46 윤동주 하숙집 터

## 82 윤동주의 장소 동선

서촌 윤동주 하숙집터 ~ 수송동 계곡 ~ 윤동주 언덕 ~ 윤동주 문학관

서촌의 윤동주 하숙집 터부터 수송동 계곡을 거쳐 윤동주 언덕으로 가는 길은 인왕산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어 윤동주가 정병욱과 함께 걸었던 산책로를 따라 가는 길이 된다.

## 83 윤동주의 장소 테마 활용

이상의 집과 윤동주 문학관은 젊은 건축가가 건축 설계를 하여 건축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서울시 건축상도 수상한 건축물이다. 젊은 건축가 김지은(SWAA)이 설계한 이상의 집, 1세대 근대 건축가 박길룡이 설계한 박노수 가옥, 김소진(아틀리에 리옹)이 설계한 윤동주 문학관으로 이어지는 길은 보행 환경이 좋고 인왕산 둘레길로 연결되어 건축과 문학과 미술을 같이 만날 수 있는 동선으로 도보여행 루트로 활용할 수 있다.

## 오장환(1918-1951)

오장환은 1918년 5월 5일 충북 보은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린 시절을 안성에서 보냈다. 안정보통고등학교, 휘문고등보통학교 입학 후 경제적인 이유로 자퇴하였다. 휘문고보 시절 1933년 11월 《조선문학》지에 시 「목욕간」을 게재하였다. 1936년에서 1939년까지 일본의 동경에 체류하는 동안 최하층의 노동생활을 하면서 맑스주의의 습작 시들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 1936년 『낭만』, 『시인부락(詩人部落)』 등의 시동인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면서 본격적인 시작 활동. 1937년 8월에 첫 시집 『성벽(城壁)』(풍림사), 제2시집 『헌사(獻詞)』(남만서점, 1939), 제3시집 『병든 서울』(정음사, 1946), 제4시집 『나 사는 곳』(현문사, 1947)을 펴냈다.

### 오장환의 장소

#### ○ 남만서점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정확한 위치 파악 어려움)

남만서점은 시인 오장환이 1938년부터 운영하다 1940년에 폐점하였다. 선배 시인 이상(1910~1937)이 1936년 말, 일본으로 가면서 오장환에게 건넨 연필로 그린 자화상까지 걸어놓고 문학전문서점으로 운영하였다.

남만서점과 함께 동시에 운영하였던 출판사 남만서고에서 1939년 김광균의 첫 시집 ‘와사등’을 출간하였다. 1942년에는 미당의 첫 시집 화사집을 발간하였다. 당시 시인부락 동인이었던 남대문약국 주인, 시인 김상원이 500원을 기증하여 출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오)장환이 경영하고 있는 책점은 남만서점이라는 괴상한 이름으로, 서점 진열장에 놓인 흰 토끼털 위엔 보들레르의 시집 원서가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 울긋불긋한 무당의 큰 부채가 놓여 있고 정면 벽에는 포오의 사진과 연필로 그린 이상(李箱)의 자화상이 걸려 있어 이채를 띠었다.

이봉구, 「도정(道程)」에서

1940년대 남만서점에 드나들며 오장환에게 영향을 받은 이는 10대 후반의 시인 박인환이었다. 이후 시인 박인환은 종로 3가 근처에 마리서사를 열게 된다. 박인환 또한 오장환처럼 시인 이상을 흠모하는 마음을 이어받았다. 박인환이 마지막으로 발표한 시는 ‘죽은 아프롱’이란 이상 추모시이다. 이상 기일을 즈음하여 사흘 연속 술을 마시다가 죽음을 맞이하였다.

박인환이 숨을 거둔 곳은 세종로 135번지다. 현재 그 장소에는 대형 서점이 자리 잡고 있다. 오장환이 월북하면서 남만서점은 문을 닫았다. 남만서점과 남만서고는 김광균, 서정주의 첫 시집을 출판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와 더불어 시인 박인환의 마리서사에 영향을 주고 마리서사는 김수영 시인을 비롯한 당시 문화 예술인의 교류가 이루어졌던 장소라는 것도 중요하다.

#### ○ 보안여관

오장환은 위 서정주 시인의 장소에서 소개했듯이 1936년 서정주를 주축으로 하는 「시인부락」 동인으로 활동하였다. 보안여관은 현재 미술가의 전시는 물론 ‘예술을 파는 구멍가게’라는 공간에서 미술 이외의 문화행사도 진행한다.

그 사례로 시를 나누는 점빵 〈꽃밭의 고백〉 기획을 들 수 있다. 보안여관의 구멍가게 창문에 시가 적힌 종이를 돌돌 말아 놓고 레몬레이

드 한 잔을 사면 시를 한 편 떼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그림 2-47 갤러리 보안여관

## 9.2 오장환의 장소 동선

- 교보문고에서 마리서사까지

교보문고 ~ 제비다방터 ~ 관훈동 통문관 ~ 마리서사(현 대한보청기)

오장환의 장소 동선은 이상, 박인환, 서정주 등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은 시인의 장소와 엮어서 이어갈 수 있다. 박인환이 죽은 장소인 교보문고 부근에서 종각쪽으로 제비다방이 있던 곳이 있다. 이어 관훈동에 남만서고의 흔적은 없지만 여전히 고서점인 통문관이 있다. 가까운 거리에 마리서사가 있던 자리도 도보로 이동 가능하다.

- 보안여관에서 이상의 집까지

보안여관 ~ 이상의 집

현재 서촌에는 보안여관이 자리에 그대로 있으며 가까운 거리에 이상의 집도 있다. 오장환과 관련있는 시인의 장소끼리 동선을 이을 수 있다.

### 93 오장환의 장소 테마 활용

오장환의 장소는 그와 어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사람들과 관련 있는 문화 공간 테마 동선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중섭은 『나 사는 곳』의 속표지 그림을 그려줄 정도로 오장환과 친밀했다. 오장환의 사망 소식을 듣고 〈추모〉라는 그림을 그려 그의 죽음을 추도했다고 한다. 1947년 6월에 출간된 오장환의 시집 『나 사는 곳』의 속표지 그림은 8·15 해방부터 월남전까지의 기간 동안 이중섭의 작품세계를 짐작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시인 이상의 제비다방과 이상의 집, 화가 이중섭과 시인 서정주의 보안여관, 시인 박인환과 김수영의 마리서사 등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사람과 장소를 이을 수 있다.

## 김수영(1921-1968)

김수영은 1921년 서울에서 출생하였으며 1941년 도쿄상대에 입학하였다. 만주로 이주 후 8·15 광복과 함께 귀국하였고 김경린, 박인환 등과 함께 합동 시집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을 간행하였다. 시집 『달나라의 장난』, 『거대한 뿌리』, 『달의 행로를 밟을지라도』, 산문집 『시여 침을 뱉어라』, 『퓨리틴의 초상』 등을 출간하였으며 1968년 교통사고로 작고하였다.

### 김수영의 장소

김수영의 장소는 책과 관계된 장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 마리서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 3가 2

시인 박인환이 원서동에 살면서 종로에서 1945년 말에 2년 정도 열었던 20평 정도 규모의 서점이다. 1947년 마리서사 앞에서 박인환이 찍은 사진 속 마리서사 진열장에는 불어로 문학, 시, 연극, 예술이라 표기되어 있다. 책방의 이름은 프랑스의 여성 시인이자 화가이고 기욤 아폴리네르의 연인이었던 마리 로랑생에서 이름을 따왔다.



그림 2-48 마리서사의 과거와 현재

한자 茉莉는 박인환에게 영향을 주고 김수영이 극찬했던 박일영이라는 화가가 일본의 모더니즘 시인 ‘안자이 휴유에’의 시집 「군함팔리(軍艦茉莉)」에서 따와 지어주었다고 한다. 김광균, 김기림, 오장환, 정지용, 김수영 등이 자주 찾았던 모더니스트의 사랑방 같은 곳이었다. 1930년대 김기림 등에 의해 일어났던 모더니즘 시운동이 말리서사를 통해 광복 후 다시 이어졌다는 의미가 있다.

죽은 인환(寅煥)이가 해방 후에 종로에서 한 2년 동안 책가게를 한 일이 있었다.  
 ...그가 죽은 뒤에도 살아있을 동안에도 나는 그 책가게를 빼어놓고는 인환이 나 인환의 詩를 생각할 수가 없었다.

...

낙원동 골목에서 동대문 쪽으로 조금 내려온 곳에-요즘에는 공립약방이라나 하는 간판이 붙어있는 집이다.-그는 茉莉書舍라는 책사를 내고 있었다. 벌써 17, 8년 전 일이지만, 동쪽의 널따란 유리 진열장에 그린 <아르르강>이라는 圖案글씨이며, 가게 안에 놓인 커다란 유리장 속에 든 멜류알, 서협순삼랑(西協順三朗)의 시집들이며, 용수철 같은 수염을 뺀 달리의 사진이 2, 3년 전의 일처럼 눈에 선하다.

...

사실은 이 글의 의도는, 말리서사를 빌어서 우리 문단에도 해방 이후 짧은 시간 이기는 했지만 가장 자유로웠던, 좌우의 구별 없던, 몽마르뜨르 같은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자랑삼아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그 당시만 해도 글 쓰는 사람과 그밖의 예술하는 사람들과 저널리스트들과 그밖의 레이맨들이 인간성을 중심으로 결합될 수 있는 여유있는 시절이었다. 그당시는 文名이 있는 소설가 아무 개보다는 복쌍같은 아웃사이드들이 더 무게를 가졌던 시절이고, 예술청년들은 되도록 작품을 발표하지 않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던 시절이었다.

김수영, 「茉莉書舍」

현재 마리서사가 있던 자리는 대한보청기 종로직영점으로 쓰이고 있다.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도 마리서사에 대해 들어본 바가 없다는 것으로 보아 관련 기업에서 이전 공간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동양서림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114-2

동양서림은 1954년 9월 1일부터 가난한 화가의 생계를 위해 그의 부인인 역사학자 이병도 선생의 맏딸 이순경 여사가 열었던 책방이다. 당시 장욱진은 서울대 미대 교수 자리도 버리고 복잡한 서울을 피해 경기도 덕소, 충북 수안보, 용인 마북리 등에 화실을 두고 그림을 그렸다. 김수영 시인이 이 서점의 단골이었다고 전해진다.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선정되었다.

현재 동양서림은 이순경 여사가 운영할 당시 점원이었던 2대 사장 최주보씨에 이어 딸인 최소영씨가 가업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림 2-49 동양서림

규장각 ~ 선향재 ~ 중추원 ~ 마리서사 ~ 동양서림 ~ 디자인라이브러리 ~ 북소사이어티 등

마리서사와 동양서림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간과 성격을 달리하는 책의 장소 동선을 연결할 수 있다.

김수영의 책과 관계있는 장소로써 그가 박인환 등 당대의 많은 문화 예술인과 교류하였던 마리서사는 사라졌지만 그곳을 중심으로 서울에 있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책의 장소'를 연결하는 테마 여행의 동선으로 활용할 수 있다.

브라질에서 서울로 여행 온 루시아나 아제베두(Luciana Azevedo) 씨는 창덕궁 내 왕실 도서관이었던 규장각과 '좋은 향기가 나는 집'이라는 뜻의 서고였던 선향재를 보고 마리서사가 있던 자리와 박인환 시인의 옛집을 거쳐 가회동 디자인라이브러리에 이르는 테마 여행을 하였다. 배병우 작가의 창덕궁 사진집을 보며 여행을 마무리하였고 책과 관련된 서울의 장소를 과거와 현재에 거쳐 연결하는 동선에 큰 흥미를 느끼고 밀도 높은 체험에 만족하였다.



그림 2-50 주합루 규장각



그림 2-51 선향재



### III 근대 미술의 장소

- 1 고희동
- 2 이상범
- 3 전형필
- 4 김환기
- 5 김종영
- 6 최순우
- 7 권진규
- 8 박노수
- 9 창덕궁 벽화
- 10 천경자
- 11 나혜석
- 12 구본웅
- 13 이중섭
- 14 박수근
- 15 장소의 연결 1 - 창신동
- 16 장소의 연결 2 - 서울을 구심점으로
- 17 공간의 재현

### III 근대 미술의 장소

근대 미술의 장소는 연구의 시간적 범위인 개화기에서 해방 전후까지의 시기에 속한 미술인이 자택이나 작업실 등으로 사용하였던 공간으로, 현존하는 건축물과 현재 작가의 작품을 접할 수 있는 영구적인 장소를 첫 번째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두 번째 연구대상으로 흔적은 남아있지 않으나 인물의 생애를 통해 중요한 곳으로 간주되는 장소를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 유형(有形)의 장소

작가	장소
고희동	원서동 고희동 가옥
이상범	누하동 정전화숙
전형필	성북동 간송미술관
김환기	부암동 환기미술관, 신안 김환기 가옥, 수향산방, 서울미술원, 종로화랑
김중영	평창동 김중영 미술관
최순우	성북동 최순우 옛집
권진규	동선동 권진규 아틀리에
박노수	육인동 박노수 가옥
창덕궁 벽화	창덕궁 내 대조전, 경훈각, 희정당
천경자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관

○ 무형(無形)의 장소

작가	장소
나혜석	정동예배당, 여자미술학사, 경성보육원, 수덕여관, 나혜석 거리
구본웅	필운동 집터
이중섭	누상동 집터
박수근	창신동 박수근 집터

## 고희동(1886-1965)

고희동은 1886년 서울에서 출생하였고 처음에 안중식 문하에서 전통회화를 수업했고 이후 우리나라 최초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동경미술학교 양화과) 서양화의 기법을 배워온 화가이다. 귀국 후 서화협회를 조직하고 전람회 개최하는 근대미술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하였다. 보성고보, 중앙고보, 휘문고보에서 재직하며 미술교육에 종사하였는데 휘문고보 재직 시절 간송 전형필에게 오세창을 소개한 인물이다. 일본 유학생생활을 끝낼 때 그린 세 점의 자화상(유화)은 현존한다. 그 중 〈부채를 든 자화상〉은 우리나라 최초의 유화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2012년 등록문화재 제487호로 등재되었다. 한국 서양화의 선구자이지만 후에 회심하여 전통적 회화를 서양화와 절충하는 작품을 추구하였다.

### 고희동의 장소

#### ○ 고희동 가옥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5길 38

고희동이 1918년부터 41년간 살았던 집이다.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직접 설계한 개량한옥으로, 서양식 거실의 화실과 가구, 전통 한옥을 연결하는 복도 등 동·서양의 주거문화의 장점을 조화롭게 풀어낸 건축물이다. 등록문화재 제84호이다.

1950년대 말 고희동은 이 집을 떠났고 그 후 50여 년간 주인이 바뀌며 집의 본래 모습은 훼손되고 복구할 수 없었다. 2005년 대형가구회사가 주차공간으로 쓰기 위해 매입하면서 폐가로 전락하며 존폐 위기에 처했다가 종로구에서 매입하여 복원하였다. 이미 지난 세월 동안 훼손되어 원형을 상실하였지만 지역 문화단체의 반대로 종로

구에 매입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복구, 유지되었다.



그림 3-1 고희동 가옥 내부

2013년 종로구는 현재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과 업무협약을 맺어 내셔널트러스트에서 문화 프로그램과 교육 행사, 전시회 등의 사업을 운영한다. 2012년 11월 동안 고희동 화백이 활동 당시의 화구와 유품, 지인과 제자의 진품 등을 전시하는 ‘춘곡 고희동’전을 개최하였고 2014년까지 ‘춘곡 고희동과 친구들’이란 표제로 매회 전시를 이어오고 있다.

## 이상범(1897-1972)

이상범은 1897년 충남 공주에서 출생하였으며 호는 청전(靑田)이다. 근대한국화의 대표적 산수화가로, 조선서화미술회 강습소에서 안중식과 조석진에게 사사하고 졸업 후 1925년부터 조선미술전람회 에서 10회 연속 특선을 차지하며 화가로서 실력을 인정받는다. ‘청전양식’이라는 한국의 시골 산야와 전원의 정취를 독자적인 화법으로 처리하며 자신만의 예술영역을 확고히 쌓았다. 미술평론가 이경성은 ‘한국의 평범한 서민들의 소박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독자적인 조형세계를 이룩하고 이를 특유의 한국적 감성과 미의 세계로 정형화시킨 그의 예술적 생명력은 한국화의 한 결정체’라고 평하였다. 1947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가 창설되고, 이에 작가·심사 위원·고문 등을 역임하며 작품 활동을 전개하였다. 1962년 조선미술전람회 에서 최고상인 창덕궁상을 수상하였다. 대표작으로는 동아일보사 소장의 <설로도(雪路圖)>(1957년), 개인소장의 <고원귀려도(高原歸旅圖)>(1959년) 등이 있다.

### 2.1 이상범의 장소

#### ○ 청전화숙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31-7, 31-8

청전화숙은 1933년경부터 자택인 청전화옥 안에 개설한 화실이다. 당시 이상범은 조선미전 최고의 수묵화가로서 자리 잡은 시기였다. 청전화숙의 작가들은 김은호의 문도들에 비해 그 규모는 훨씬 작았으나 수묵사경 화풍을 중심으로 낙청헌화숙<sup>5</sup>과 경쟁구도를 이루며

5 화숙은 ‘서당식’ 개념의 개인 교육기관으로 김은호는 1920년대 후반부터 최대 규모의 개인화숙을 운영하였다. 낙청헌화숙을 통해 배출한 제자들은 김기창, 장우성 등 300여 명에

1930년대 이후 근대화단에 대단한 영향력을 차지하였다.

8평 정도 되는 화실 안에는 ‘퇴계집’, ‘열하일기’, ‘목민심서’ 등의 작가가 생전에 즐겨 읽었을 서적과 생전에 그가 사용한 각종 화구와 손때 묻은 유품이 보존되어있다.

청연산방(靑硯山房)이라 불리기도 한 이곳에서 자연적인 운치를 만들어 놓아 고향을 그리며 정취를 느끼고자 했던 작가의 마음은 훗날까지 기억된다.

비록 그 자신은 서울 시정에 묻혀 살면서도 그가 태어난 산촌의 무한한 자유를 못 잊어 했고, 그 자연 속에 욕심 없이 동화되어 사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쏟았던 것이 사실이다. 청전이 태어난 고장은 공주시 정안으로 금강에서 멀지 않지만 역시 조용하고 한산한 야산 지대의 마을이다. 그런 산촌의 정경이 중국이나 일본에 있을 리 없었고 그것은 그의 체험 속에 살아있는 마음의 산하였다<sup>6</sup>.



그림 3-2 청전화옥 마당

---

이른다고 김은호는 회고한다(참고: 김소연, 2014, “도제식 교육과 미술학교”, 『근현대미술사아카데미』, 국립현대미술관).

6 최순우, “스산스럽고 조출한 우리 풍토의 예사로운 산하-이상범”, 『계간 미술』 20, 중앙일보사, 1981. 12.

이상범은 이곳에서 작고할 때까지 30년 동안 거주하며 작품을 제작하고 제자를 가르쳤다. 1972년 봄, 75세로 자택에서 미완의 절필작 2점과 화실을 보존해 달라는 유언과 함께 생을 마감하였다. '수묵산수의 독보적인 존재, 한국적 독특한 그림 확립' 등 일간신문들은 거성의 타계를 일제히 보도하였다.

누하동 오가리五街里 구불구불 구불어진 골목길 막바지에 조그마한 화실 하나 장만한 지도 벌써 십여 년이 되었다. 나는 이 화실의 장치에 대한 관심보다도 내가 이 화실에서 작품을 구상하고 제작하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무엇보다도 행복감을 느낀다. 참으로 나의 이 조그마한 화실은 나의 모든 창조적인 계기를 계시해 주고 정리해 주면서 실현에 옮겨주는 유일한 일터이다.

나의 모든 생활과 생명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이곳에서 모색된다. 나이 육십이 가까워가니 사교방식법과 화풍이 젊은 사람들과 자연히 달라진다. 그러나 나는 항상 낡은 형식에 그대로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것을 진격眞擊하도록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모색이 나의 화실의 최근의 분위기다. 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현대를 이해하고 현대를 연구하고 싶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고유한 민족성을 토대로 해야 한다고 본다. (중략)

아직 한 번도 갖지 못한 개인전을 나는 또 이 화실에서 꿈꾸어 본다. 참으로 단체전에 비해서 개인전이란 한 작가를 온전히 알 수 있을 것이며 또 그 작품의 진가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개인전을 펴어나 어렵게 보게 되고 좀처럼 열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 일생에 한번은 반드시 가져 보겠다는 꿈이 살아 있다. 그것이 앞으로 1년이 될 지 2,3년이 될지 모르나 꼭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개인전은 그 작가의 생명과 생활의 숨김없는 결정체를 그대로 내놓게 되기 때문이다<sup>7</sup>.

2005년 4월 15일 등록문화재 제171호로 지정되었다. 자유롭게 내부 관람이 가능하고 자택인 청전화옥은 내부의 공간마다 사용하던 가구와 집기 등 당시 생활모습을 간략히 재현, 자택과 연결된 청전화숙 또한 작가의 생전 유품과 화구들이 보존, 전시 중이다.



그림 3-3 청전화옥 내부



그림 3-4 청전화숙 내부

## 전형필(1906-1962)

전형필은 1906년 서울 종로 4가에서 출생하였으며 호는 간송(澗松)이다. 근대이래 한국 최대의 미술품 소장가이자 한국 최초의 사립미술관인 간송미술관의 설립자이다. 또한 보성고등보통학교를 인수하여 육영 사업에도 힘쓴 교육 사업가이기도 하다<sup>8</sup>.

전형필은 중추원의관이자 종로 일대의 상권과 방대한 토지소유자인 부친으로부터 와세다 대학 재학 중에 토지 10만 석의 재산 상속을 받고 이후 귀국 후 문화재 수집을 시작한다. 이후 그의 평생에 걸친 문화재 수집은 문화재 보존 사업에 역사적 큰 발자취를 남기게 된다. 또한 그는 당대의 많은 예술인에게 금전적 후원자였으며 동화 인보관의 양로원 등 기부와 구제 사업에도 힘썼다. 해방 이후 문화재보존위원으로 각지에 고적조사를 다니며 1960년 고미술동인회를 발족시키고 고고미술 잡지를 발간하다가 1962년 급성 신우염으로 56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다.

### 3.1 전형필의 장소와 인물

#### ○ 간송미술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 · 북단장

1934년 프랑스 석유상에게 성북동의 1만 평짜리 산장을 구입하여 ‘북단장’이라고 이름을 짓고 당대 서화가문사들과 교류하였다. 1938

---

8 그는 1940년 당시 3·1 운동 때 기미독립선언서를 찍어낸 인쇄소가 있었던 독립운동의 산실인 보성고보(보성고등보통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하자 인수, 1945년 12대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년에는 북단장 안에 서양식 2층 양옥의 사립박물관을 지어 ‘보화각’이라고 명명하였다.

- 보화각(葆華閣)

‘나라의 빛나는 보물을 모아둔 집’이라는 뜻의 보화각은 간송미술관의 전신이다.

전형필은 1930년 일본에서 귀국 후부터 문화재 수집을 시작하였는데 그의 수집열은 사적인 취미나 투자가 아닌 전통문화의 맥을 잇기 위한 방법이자 일본의 식민통치시대에 한국의 문화재가 밀반출되어 일본의 수장가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1932년 서울 관철동에 당시 유일한 대형 고서적 전문서점인 한남서림을 인수, 스승인 독립운동가이자 대학자인 오세창(1864-1953)을 따라다니며 본격적으로 전국의 문화재 수집을 시작하게 된다.

한남서림을 통해 구한 책 중 희귀본이나 진서가 있으면 학자들과 가치를 살핀 후에 보화각에 설치한 간송문고로 옮겼는데 당시 동국정은 권 1,6(국보 제71호), 동래선생교정북사상절 권 4,5(국보 제149-1호) 등 소중한 자료를 이곳에 모았다.

- 보화각에서 ‘간송미술관’으로

1962년 전형필의 갑작스러운 타계로 유족과 미술계 인사들이 1966년 ‘한국민족미술연구소’를 세우고 간송 컬렉션의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다. 1971년 ‘보화각’을 간송미술관’으로 변경하였다.

간송미술관은 미인도(혜원 신윤복 작품),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국보 제68호), 금동계미명삼존불입상(국보 제 72호) 등 국보 12점, 보물 8점 포함 유물 5,000점을 소장하고 있다.

1940년 전형필은 1446년(세종 28년) 간행된 ‘훈민정음(訓民正音) 해례본’을 안동에서 발견하였는데 ‘훈민정음은 그러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말로 책 주인이 원하는 값의 열 배를 더해 주고 구입한다. 당시 1942년 조선어학회 학자들이 모두 잡혀 들어가고 한글 탄압정책을 펴던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구입 사실을 비밀에 부치고 1945년 광복 후에 공개하였다.

1950년 그동안 수집한 문화재를 모두 두고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을 때 훈민정음을 오동나무 상자에 넣어 보관하며 피난 시절 동안 몸에 서 한순간도 떼어 놓지 않으며 지켰다고 지켜내었다<sup>9</sup>.

○ 전형필과 오세창

전형필이 휘문고보를 다니던 고교 시절 미술교사였던 고희동으로부터 미술에 대한 소양과 안목을 키웠고 이후 오세창을 소개받는다. 오세창은 천도교인이자 개화파로서 3·1 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로 추사 김정희의 학맥을 적통으로 이어받은 대학자이자 언론인이었다. 전형필은 오세창과의 교류를 통하여 예술적 감식안과 민족미술에 대한 정체성을 키우게 된다.

간송미술관은 지난 40여 년간 겸재 정선, 현재 심사정, 단원 김홍도, 추사 김정희 등 대가들의 전시부터 고려청자, 문인화, 풍속인물화에 이르는 장르 전시를 이어오고 있다.

대규모의 관객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건물의 구조와 규모로 매년 두 차례 5월과 10월에 보름간 미술관을 개장한다.

또한 2014년 3월부터 외부 일반전시를 시작하여 간송미술관의 소장품을 접할 수 있는데 현재 동대문플라자에서 2014년 3월 1부, 7

---

9 훈민정음 3부, 훈민정음을 지켜낸 간송 전형필(출처: 문화유산채널).

월 2부에 이어 ‘간송문화전’ 3부 ‘진경산수화-우리 강산, 우리 그림’ 전이 2015년 5월 10일까지 진행된다.

2013년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설립되어 한국미술 문화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장, 학술연구를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 김환기(1913-1974)

김환기는 1913년 전남 신안 안좌도에서 출생하였으며 아호는 수화(樹話)이다. 근현대미술사를 대표하는 서양화가이자 한국 초창기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프랑스와 미국에서 활동하며 한국미술의 국제화를 이끌었다.

1936년 일본대학 예술학원 미술학부 졸업 후 1937년 귀국하여 ‘아방가르드 양화연구소’, ‘백만회’ 같은 그룹을 조직하고 한편 ‘이과회’와 1938년 이증섭과 함께 제2회 자유미술가협회전에 출품하는 등 활발히 활동을 펼쳤다. 해방 이후 유영국, 이규상 등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미술 그룹인 ‘신사실파’를 조직하고 그룹전을 열었다. 1956년에서 1959년까지 파리에서 활동한 후 귀국, 1965년 뉴욕으로 건너가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1963년 브라질 상파울로 비엔날레에 한국대표로 참가해 회화부문 명예상을 수상했다. 1970년부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1970)와 같은 작품처럼 캔버스에 한 점 한 점 찍어가는 행위의 제작방식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하였다.

1974년 목 디스크 수술 후 61세의 생을 마감, 평소 부인과 즐겨 가던 뉴욕 발할라(Valhalla) 마을 켄시코 묘지에 안장되었다.

주요 작품에는 <론도>(1938), <항아리와 여인들>(1951), <항아리와 매화>(1954), <영원의 노래>(1957), <산>(1958), <18-VII-65 밤의 소리>(1965), <작품>(1968),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1970), <Echo22-1>(1973), <09-05-74>(1974) 등이 있다.

작품 <론도>(1938)는 한국에서 생활할 때 작업실에 놀러 온 세 딸이 그가 즐겨 들었던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중 론도 알레그로와 슈베르트의 론도 A장조 D438번의 선율에 맞추어 놀던 모습을 스케치하여 작업한 것으로 훗날 뉴욕의 작품 활동시기에도 소리를 소재로 한 작품

을 제작하였다. <론도>(1938)는 등록문화재 제535호로 지정되었다.



그림 3-5 <론도>(1938)  
캔버스에 유채, 61x 72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자료: 환기미술관

#### 4.1 김환기의 장소

- 환기미술관

김환기의 작품에 있어서 절대적인 지원자이자 조연자였던 부인 김향안(본명 변동림)이 서울생활 당시의 거주하였던 성북동과 비슷한 운치를 가진 부암동 언덕에 1992년 미술관을 건립하였다. 위치는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40길 63이다.

- 수향산방

김환기는 화가이자 미술평론가, 미술사학자였던 근원(近園) 김용준(金瑬俊, 1904-1967)에게 ‘늪은 감나무집’을 뜻하는 노시산방(老柿山房)을 물려받고 부인 김향안과 본인의 아호에서 각각 한자씩 가져와 ‘수향산방’이라고 다시 이름을 지었다. 당시 주소는 경기도 고

양군 송인면 성북리 65-2로 성북동은 고양시에 속하였다.

이곳은 김용준이 지은 ‘노시산방(老柿山房)’이라는 이름처럼 70~80년 정도 수령의 감나무가 두세 그루가 있고 집 앞까지 개울이 흐르며 집 주변은 수백 년 된 소나무, 전나무와 고추밭이 많은 한적한 동네였다. 수향산방은 현재의 간송미술관 뒤 위편에 자리한 ㅁ자형 한옥집으로 감나무 외에 은행나무, 밤나무, 대추나무, 자두나무, 복숭아나무, 앵두나무 울타리가 있었다. 후에 안좌도에서 상경한 어머니의 의견으로 창덕궁 근처 원서동 양옥집으로 이사하였으나 1949년 다시 성북동으로 돌아왔다.

또한 이 곳은 당대의 미술가들이 자주 방문하여 담소를 나누고 김환기가 수집한 백자와 고가구를 감상하는 사랑방 역할을 하였다. 그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당시 동숭동 위치) 재직 당시 혜화동에서 보성고등학교 언덕을 넘는 수향산방까지의 길과 성북동 성벽을 따라 혜화동으로 넘어와 창경궁 돌담을 끼고 돈화문의 길을 즐겨 걸었다.

- 종로화랑

1944년 김환기가 1년간 운영한 화랑으로 보신각 뒤쪽 관철정 288번지(현 종로구 관철동. 일제강점기 명칭)에 종로화랑을 개관하여 첫 전시로 ‘고서화전’을 열었다.

- 서울미술원

김환기는 생계를 위해 원효로에 ‘서울미술원’을 개설하였다. 학생과 일반인을 위한 미술학원으로 부인 김향안이 프랑스어도 가르쳤다. 후에 광화문 네거리 근처 세종로로 옮기었다<sup>10</sup>.

---

10 동아일보, 1961. 9. 20., “洋畫家(양화가)·金煥基氏(씨)가指導(지도)하는 “美術學園(미술학원)”과 ‘金鄉岸女史(여사)’의 佛語講座(불어강좌)는 이번 市內世宗路二一(시내세종로이

- 신안 김환기 가옥  
김환기의 생가로 일본 유학 후 기거하며 작품 활동을 하였던 곳이다. 현재 신안군 교육청의 소유이며 교사사택으로 사용 중이다. 위치는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55번지, 중요민속문화재 제 251호이다.

## 4.2 김환기와 인물

- 문학인과 교류  
문학가를 꿈꾸기도 하였던 그는 이현구, 함세훈, 김광섭, 노천명, 정지용 등의 문인들과 우정을 나누었다.  
정지용은 김환기의 작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환기가 안좌도 생활 당시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만남을 가졌다. 후에 김향안(변동림)과 결혼할 때 서양화가 길진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이자 이종우, 장발, 김용준, 구본웅과 함께 '목일회'를 조직하여 활동)과 함께 사회를 보았다.  
김환기는 문인들과 교류하며 다수의 단행본과 잡지의 표지화를 그렸는데 1952년 부산 피난시절에도 잡지사, 출판사 관계자들로부터 표지화 주문이 쇄도하였다.

그는 훗날 «현대문학»를 비롯해 1940~1950년대에 창간된 중요 문학잡지의 창간호 표지와 김동인의 «발가락이 닳았다»,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 최정희의 «바람 속에서» 같은 소설책, 신석초의 «바라춤», 노천명의 «별을 쳐다보며» 같은 시집의 표지화를 그렸다<sup>11</sup>.

11 일)○의三(삼)「大韓女子美術院(대한여자미술원)」자리[三層(삼층)]로 옮기었다.” 이충렬, 2013, 「김환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유리창, 68~69쪽.

- 미술인과의 교류
- 최순우

조선백자와 목가구를 수집해온 그는 특히 백자에 대한 수집열이 높았다. 달항아리와 달, 구름, 산은 오랫동안 작품의 소재가 되었다. 백자수집에 관한 열정으로 미술사학자 최순우와 교류를 나눈 인연은 김환기의 말년 뉴욕 생활 시기까지 이어진다.

최순우는 그에게 미국의 록펠러재단의 문화교류 촉진을 위한 기금 신청을 알려주기도 하고<sup>12</sup> 한국에 남아있는 김환기의 자녀들을 돌보았다. 이전 부산 피난시절에도 국립박물관에서 전시의 기회를 마련하여 주었으며 1971년에 뉴욕에서 활동 중인 김환기가 신세계백화점 화랑에서 전시하도록 주선하여 그가 1969년부터 1971년까지 제작한 45점의 작품을 고국에서 선보일 수 있었다. 당시 한국에 올 수 없었던 김환기를 대신하며 성공적인 전시를 마치도록 도왔다.

순우 아형 청하淸下

참, 미안합니다. 편지 한 번 못 띄우고, 정신없이 살아가니 맘은 간절하면서도 편지 쓰기가 어려워요. 새해에 들어서나 좀 긴 편지를 드릴까 해요. 여러 가지로 나를 위해 애써주심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희들까지도. 밝아오는 새해에도 부디 건강하시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971년 12월 16일

수화, 향안 배拜

---

12 김환기는 1964년 록펠러재단의 1년간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그의 작품 활동과 생계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림 3-6 1957년 파리에서 최순우에게 보낸 연하장

- 오봉빈, 고희동, 오세창, 이중섭  
 김환기는 파리와 뉴욕에서의 활동과 정착 전까지 한국의 교단과 화단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며 미술인들과 교류가 많았다.  
 그 중 몇몇 주요 인물을 살펴보면 화랑개관 준비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기획자였던 오봉빈<sup>13</sup>은 고희동에게 그를 소개하고 고희동은 오세창에게 김환기를 소개하여 화랑 개관에 앞서 조언을 받았다. 후에 고희동은 김환기와 김향안(변동림)의 결혼식에 주례를 맡았다.

13 오봉빈(吳鳳彬, 1893-1945)은 오세창의 권유로 서울에 <조선미술관>을 개원, 운영하였다. 그는 수장가들의 서화와 서책을 기획전 형식으로 전시하여 판매하였고 간송 전형필의 문화재 수집에도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전해진다(참고: 두산백과).

김환기는 부산 피난시절에 이중섭과 함께 ‘신사실파’ 동인으로 활동하였고, 1955년 서울에서 열린 이중섭의 첫 번째 개인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추천사를 썼다.

## 김종영(1915-1982)

김종영은 1915년 경상남도 창원에서 출생하였으며 한국 근대조각의 선구적 조각가이자 교육자이다. 한국근대미술사의 선구자들을 배출한 휘문고보를 졸업하고 1941년 동경미술학교에서 조각을 전공하였다. 1946년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가 창설될 때 조소과 교수가 되어 1980년까지 후진 양성에 힘썼다.

1953년 <무명 정치수인을 위한 모뉴먼트>를 런던 국제조각대회에 출품하여 수상하고 이후 마닐라 국제전, 1963년 브라질 상파울루 비엔날레 등 국제전에 참가하였다.

1960년대에 접어들며 추상적인 순수조형작업으로 몰두하며 나무, 금속, 대리석을 재료로 한 단순한 형태의 작품으로 발전시켰다. 후에 1974년 한국현대미술의 발전과 후학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이 서훈되었고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주요 작품으로 <가족>(1965), <전설>(1958) 등이 있다.

그의 작품세계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는 릴케의 시에서 읊었듯이 돌이나 나무, 그리고 쇠 같은 물질을 써서 그 물질 이상의 것을 조형의 방법으로 이룩하고 생명을 부여함으로써 무기적인 물체를 유기적인 생명체로 환원시켰던 것이다. 최소의 표현으로 최대의 효과를 의도하는 작가의 예술적 자세는 어쩌면 본능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금욕주의자인지도 모른다<sup>14</sup>.

14

이경성, 1986, “생명의 근원을 찾아..”, 『미술세계』

## 김중영의 장소

- 김중영 미술관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32길 30

대표적인 조각전문미술관으로 김중영의 타계 20주기를 맞아 2002년 설립되었다. 작가의 유품과 조각 작품, 드로잉 수천 점을 소장하고 있다. 특히 본관 불각재는 김중영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상설특별전으로 운영된다.

## 최순우(1916-1984)

최순우는 1916년 개성에서 출생하였으며 본명은 희순(熙淳), 호는 혜곡(兮谷)으로 미술사학자이다.

최순우는 평생을 한국미술사 연구와 박물관인으로 한국미술의 문화에 이바지하였다. 개성 송도고등보통학교 졸업 후 교편을 잡다가 1943년 개성부립박물관을 시작으로 1945년 서울의 국립박물관 학예연구관, 미술과장, 학예연구실장 등을 거쳐 문화재위원회위원(1967년~1984년), 한국미술평론인회대표(1962년~1965년), 한국미술평론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취임되었다. 1945년부터 5년간 문학회 «순수(純粹)」의 주간을 맡으며 한국미술에 대한 주옥같은 글을 발표하였다.

최순우의 주요 저서로는 「한국미술사 개설」, 「한국 공예사」, 「한국미 한국의 마음」, 「한국회화」 등이 있으며, 유고집으로는 「최순우 전집」,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가 있다.

최순우는 1984년 국립중앙박물관 청사를 구(舊) 중앙청 건물로 이전하는 작업을 지휘하던 중 숙환으로 개관을 눈앞에 두고 별세하였다.

바라봐서 아름다운 예를 들자면 한이 없지만 우리 신라 시대의 부처님들을 바라볼 때면 한층 그러한 즐거움을 느낄 때가 많다. 석굴암 본존 석가여래만 하더라도 바라보면 그 야무진 화강석을 어찌 저다지도 흐뭇하게 잘 다듬어 다루어 냈을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 참 잘 생겼구나 하는 감명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 큰 덩치의 어디를 찾아봐도 잔재주나 수다스럽고 곰살궂은 수공을 들인 곳이 없다. 부처님은 우러러볼 때 존엄해야 되고 물러서서 바라볼 때 감명을 받기 마련이지만, 이웃 나라 조각과 다른 점은 바로 근시안적인 아름다움의 표현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sup>15</sup>.

## 최순우의 장소

### ○ 최순우 옛집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15길 9

최순우 옛집은 대중적으로 알려진 저서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가 완성된 곳이다. 조선시대 말기 가옥으로 1930년대 서울 지역의 도시형 한옥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인근 지역의 재개발 추세로 존폐 위기에 처했으나 2002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 시민의 성금으로 매입하여 2004년부터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민문화유산 1호이다. 안채에는 '혜곡 최순우 기념관'이 운영 중으로 최순우의 원고와 사진 등 유품이 상설 전시되어 생전의 흔적들을 엿볼 수 있다.



그림 3-7 최순우 옛집

## 권진규(1922-1973)

권진규는 1922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출생하였으며 한국근대조각을 대표하는 조각가이다.

석유대리점을 경영하는 부유한 집안의 6남매 중 차남으로 성장하였다. 고향을 떠나 춘천에서 중등교육을 받고 20세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지만 미술학교 입학에 실패, 사설기관에서 기초과정을 이수한다. 당시 2차 대전으로 인한 일본의 병역의무를 피해 귀국, 25세에 일본으로 다시 유학을 떠난다.

1948년 무시시노 미술학교에서 부르델(Bourdell, E)의 제자로 일본 조각계의 지도적 인물이었던 시미즈 다카시를 사사하였다. 졸업 후 일본 이과회(二科會)에 출품, 최고상으로 주목을 받고 작품 활동을 펼치며 일본화단에서 인정받기 시작하였으나 1959년 어머니의 병환으로 귀국하였다.

훤의 조각가인 그는 흙을 반죽하면서 생성뿐 아니라 소멸을, 탄생뿐 아니라 죽음을 동시에 생각했을 것이다. 사람과 말과 소 같은 생명체를 빚어내면서 그는 흙의 비밀에 대해 깨쳤을 것이다. 흙은 생명을 잉태하면서 결국 그 생명을 수렴해간다. 그런 점에서 그는 흙의 예술가였을 뿐 아니라 흙의 철학자였다. 빛나는 상상력도, 명징한 사고도, 빼어난 아름다움과 위엄과 권위도 결국은 흙에 간혀 소멸되고 다시 그 흙 속에서 생성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철학자였다<sup>16</sup>.

권진규의 동선동 시절은 작가의 생애에서 전성기로 평가된다. 그는 특히 테라코타(terracotta)와 건칠(乾漆)을 사용한 두상과 흉상을

16

김병중, 2014, 「화첩기행2」, 문학동네, 13쪽.

주로 제작하였다. 가름한 얼굴에 긴 목과 사선으로 처리된 어깨로 단순하게 표현한 여인들의 흉상 작품이 특징이다.

이곳에서 <영희>(1964), <스카프를 맨 여자>(1969), <자소상(自塑像)>(1967) 등의 작품을 탄생시켰다.

대표작은 <지원의 얼굴>(1967)이다. 1973년 5월 4일 자신의 아틀리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



그림 3-8 <지원의 얼굴>(1967)  
테라코타, 50x32x23cm,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자료 : 국립현대미술관

71

## 권진규의 장소

- 권진규 아틀리에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26마길 2-15

권진규가 1973년 작고할 때까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던 가옥과 작업실로, 1959년 일본에서 귀국한 후 직접 지었다. 지하의 수맥을 찾

아내 우물을 파고 가마를 설치하여 테라코타 제작이 가능하도록 손수 설계한 아틀리에에는 이후 등록문화재 제134호로 지정되었다. 권진규의 여동생 권경숙이 2006년 말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에 기증하였다. 가족이 거주하던 살림채와 아틀리에에는 안전문제로 내부 공간 재현을 위한 보수복원공사를 마친 뒤 개방되었다. 대작을 소화할 만한 높은 천장과 작업 당시 사용했을 작업대와 흙 저장 공간으로 보이는 진열대 등 생전의 작업실의 모습이 재현되었다. 2008년 개소식을 치르고 현재까지 음악회와 심포지엄, 교육프로그램 등 정기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08년부터 매년 봄 6개월 프로그램으로 젊은 예술가들에게 작업과 전시의 기회를 제공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 운영 중이다. 한 달 1회 지정된 개방일에 사전예약으로 방문이 가능하다.



그림 3-9 권진규 아틀리에

## 박노수(1927-2013)

박노수는 1927년 충남 연기군에서 출생하였으며 호는 남정(藍丁)이다. 한국화가로 1952년 서울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였으며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1956년~1962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1962년~1982년)에서 제자를 양성하였다. 1949년에서 1981년까지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 제1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작품을 출품하며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하였다. 화면에 쪽빛, 푸른색, 주황색, 붉은색 등 원색계열의 색을 사용하며 한국화의 새로운 색채감을 선보이는 작품의 세계를 구축하였다.

### 박노수의 장소

- 박노수 가옥(현 종로구립 박노수 미술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1길 34

서울시 문화재자료 1호(1991년)로, 건립연도는 1937~1939년으로 추정된다. 박노수 가옥은 일제강점기 대표적 친일파인 윤덕영이 딸에게 선물하기 위해 지은 집으로 전해지는데 1973년 박노수가 구입하여 2011년까지 화실로 사용하며 거주하였다. 2011년 박노수는 작품 500점, 고가구 66점, 수석 379점, 기타 애장품 49점 등 1,000여 점을 종로구청과 기증 협약을 맺었다. 작고한 뒤 후손이 종로구에 기증, 2013년 종로구립 박노수 미술관으로 개관되었다.

5년 전에야 현재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마음만 앞섰지 경제적 실력은 미미한 터라 나로서는 당시만 해도 무리에 무리를 거듭했던 것이다. 오로지 틀을 가져보고 싶은 일념에서였다. 다행히도 몰색한 집이 구가인 탓으로 틀에는 수량이 상당히 보이는 거목들이 더러 있었다.

원래 나는 산촌에서 태어나 산촌에서 자랐다.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리만큼 수목과 흙내음, 그리고 암석 등에 대해 친근감과 정다움을 느낀다. 이런 취향은 연륜을 더해 감에 따라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

(중략)

가을의 뜰에서 볼 수 있는 감의 운치도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눈부시도록 선명한 주홍빛은 석양과 낙엽 태우는 연기와 함께할 때, 그림과 같은 시정이 있다<sup>17</sup>.

그가 언급했듯이 구입 당시 정원과 정원 안의 오래된 수목들은 건물을 매입하는 주요 동기가 되었는데 수석과 나무, 식물에 대한 애정이 담긴 단편적인 글들을 그의 저서 「화필인생」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 3-10 박노수 가옥(현 박노수 미술관) 정원

여름은 뜰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계절이다. 싱싱한 수목이 지면에 펼쳐 주는 그늘이 있으면 더욱 그렇다. 그들은 보고만 있어도 즐겁다. 이곳에 수석이 함께 있어 주면 더할 나위 없다. (중략) 여름의 뜰은 생동감이 있다. 이곳에

17

박노수, 2014, 「화필인생」, 컬처북스, 112~113쪽.

자연의 기운을 가득 담아 놓고 심신을 청상清爽하게 해 봄이 어떻겠는가. 이런 기대가 분경盆景을 감상하게도 하고 수석 애호로도 옮겨질 수 있는 것이다. 화畫를 걸고 즐기는 마음 또한 그 근원은 같다<sup>18</sup>.

박노수 가옥은 조선 후기 주거가옥의 형태로 보이는 2층 건물로 중국식, 서양식이 혼재한 건축양식을 띠고 있다. 1층은 온돌방, 마루, 복도, 응접실의 구조로 구입 후 2층을 증축하였다. 미술관은 6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2층에는 대표작품과 그가 생전 사용하였던 화구가 전시되어 작품 활동의 산실이었음을 보여준다.

---

18 박노수, 2014, 「화필인생」, 컬처박스, 139쪽.

1405년 조선왕조 초기에 지워진 창덕궁은 1592년 임진왜란 때는 경복궁과 함께 소실되었으나, 1607년 복구를 시작하여 광해군 때인 1610년 중건이 거의 끝났다. 그러나 1632년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1647년 복구를 완료하였다. 창덕궁은 많은 재앙을 거쳤지만 현재까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왔으며 후원인 금원(禁苑)을 비롯하여 건물의 원형이 남아 있는 중요한 고궁의 하나이다.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궁궐의 화재가 잦았는데 창덕궁은 1917년 11월 10일 원인 모를 화재로 왕의 침전인 대조전을 비롯하여 회정당, 경훈각, 징광루, 통명문 등 열대여섯 채의 전각이 사라져 버렸다. 창덕궁의 화재 이후 1919년 고종의 승하로 한일 감정의 극은 3·1 운동으로 이어지고 1920년에야 재건사업이 이루어졌다.

당시에 이왕직(李王職)은 총독부의 협의 아래 일본인 감독에 의한 창덕궁의 재건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소실된 건물을 재건하기 위해 경복궁의 전각에서 목재를 가져오기로 계획하였다.

결국 경복궁의 교태전, 강녕전, 경성전, 흥경각, 함원전, 만경전 등의 전각이 헐리게 되었다. 재건사업은 서화 수장품과 회화작품의 제작까지 포함하였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사업이 바로 <창덕궁 벽화>이다.

애초에 벽화제작이 일본 화가들에 의해 맡겨졌으나 1926년 창덕궁에서 승하한 순종의 강력한 반대로 한국 화가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 창덕궁 벽화

- 오일영·이용우, <봉황도>, 197×57cm, 견본채색, 대조전 동벽
- 김은호, <백학도>, 197×579cm, 견본채색, 대조전 서벽
- 노수현, <조일선관도>, 184×526cm, 견본채색, 경훈각 동벽
- 이상범, <삼선관파도>, 184×526cm, 견본채색, 경훈각 서벽
- 김규진, <해금강총석정절경도>, 195×880cm, 견본채색, 희정당 동벽
- 김규진, <금강산만물초승경도>, 195×880cm, 견본채색, 희정당 서벽



그림 3-11 김규진 <해금강총석정절경도>

92

## 당대 최고의 화가와 신진세대 화가

희정당, 대조전, 경훈각 세 건물에 그려진 벽화는 각 장소에 2점, 총 6점이 제작되었다. 왕이 주로 거처하는 중요한 곳이자 가장 넓은 벽면이 있는 희정당의 동쪽과 서쪽 벽은 당시 화단의 중진이었던 김규진이 맡았다. 그는 순종의 이복동생이었던 영친왕의 서예를 가르친 스승이었기에 황실과의 인연으로 비롯된 것이라 추정된다.

김규진은 순종의 명을 받고 금강산을 여행하며 그린 밑그림을 바탕으로 <해금강총석정절경도>와 <금강산만물초승경도> 이 두 실경산수화를 제작하였는데 그는 특히 산수화와 화조그림에 능한 당대 최

고의 화가이자 우리나라 최초로 사진기를 도입한 어전 사진사가 된 인물이었다<sup>19</sup>.



그림 3-12 김규진의 <금강산만물초승경도>의 부분

그가 제작한 창덕궁의 회정당 벽화는 서구적인 눈높이의 원근법을 사용하고 바다 위에서 사진을 찍은 것처럼 보이게 그림으로써 서양 화법이나 사진술을 수용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데 비록 전통회화의 잔영을 완전히 씻어내지는 못했지만 길이 약 9m의 벽을 가득 채운 장대한 파노라마와 화려한 채색, 실경스케치와 사진을 활용한 역동적 화면은 그 자체가 회화사에 남을 작품으로 인정한다<sup>20</sup>.

19 이에 관해서는, 김규진(1868-1933)은 청일전쟁 이전에는 북경에서 전통서화를 수업하였으나, 러일전쟁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사진술을 배웠다. 귀국 후 저전 사진사를 역임하면서 1907년 소공동에 天然堂이라는 사실사진관을 개업하였는데, 신문광고와 새로운 서비스 등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마케팅으로 사진술의 대중화에 성공하였다(참고: 박계리, 2014, 「6기 근현대미술사 아카데미」, 국립현대미술관, 14~15쪽).

20 국립중앙박물관, 2000, 「아름다운 금강산」, 서울: 한국박물관회, 31쪽.

현재 개방되지 않는 경훈각의 2점의 벽화 <조일선관도>와 <삼선관파도>는 중국의 전설을 그림으로 조형한 산수인물화인데 <조일선관도>는 20대 초반의 노수현이 그린 작품이며 <삼선관파도>는 서화미술회 동기생이었던 20대 초반의 이상범이 그렸다. 서화미술회를 막 졸업한 그들에게 창덕궁벽화는 처녀작이 되었고 참여한 신진 작가들은 후에 모두 한국 근대화단의 대표적인 화가로 발돋움하였다. 이렇게 신진세대의 화가들과 한 세대 위의 중진 화가들의 함께 참여한 점이 의미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연배가 높은 김규진은 새로운 감각의 신화풍을 수용하고 갓 첫발을 내딛은 20대의 화가들은 기존의 전통화풍으로 제작한 점이 비교되어지는 흥미로운 점이다. 그러나 6점의 창덕궁 벽화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전통을 유지하되 함께 융합되어 신문화 건설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구본신참(舊本新參)의 광무개혁 이념을 반영한 이 시대의 기념비라고 할 수 있다<sup>21</sup>.

### 93 위치와 현황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99

2005년, 85년 만에 베일에 싸인 창덕궁 벽화가 일부에게 공개되었는데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예비조사 겸 언론설명회 행사였다. 이듬해 창덕궁 벽화 6점은 각각 등록문화재로(240호~245호) 지정되었다. 2015년 현재 경훈각을 제외한 희정당, 대조전의 관람은 개방하였으나 내부입장관람은 불가능하다.

21 박계리, 2014, “광무개혁과 미술계의 변화”, 『6기 근현대미술사 아카데미』, 국립현대미술관, 12쪽 참고.

## 천경자(1924~)

전남 고흥에서 출생하였으며, 한국화가이자 수필가이다.

1944년 동경여자미술대학을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정(靜)>으로 대한미협전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천경자는 1969년 세계여행을 계기로 1970년부터 꽃과 여인을 본격적으로 소재삼아 화폭에 상징적, 장식적으로 나타내며 일관된 작품세계를 추구해갔다. 주로 여인상에 집중된 그의 작품들에 나타나는 여성 이미지들은 그레타가르보, 마를린 먼로와 같은 자신이 좋아하는 할리우드 여배우들을 비롯하여 그녀의 어린 시절 우상이었던 길레언니와 같은 이상적 여인들 뿐 아니라 뱀과 함께 농후한 섹슈얼리티를 드러내는 팜프파탈적 이미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여성상을 보여준다. 이 대부분이 자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꽃과 여성, 장식성 등 흔히 여성적이라 규정되어온 이미지를 넘어서지 않고 있어 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작가라 할 수 있다<sup>22</sup>.

대표작품은 <조부의 상>(1942), <노부>(1943) 조선미전 입선, <정(靜)>(1955), <청춘의 문>(1968), <이탈리아여행>(1971-1973),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1977) 등이다.

천경자는 또한 수필가로 활동하였는데 1950년 이후부터 『현대문학(現代文學)』등 문예지에 발표하기 시작, 첫 수필집 「여인소묘(女人素描)」(正音社, 55)로 수필가로서 위치를 굳혀 갔다. 수필집으로 「유성(流星)이 가는 곳」(영문각, 64), 「언덕 위에 양옥집」(신태양사, 66), 「사모아섬, 남태평양을 다니면서 데생을 그려 넣은 「천경자 남태평양에 가다」 등이 있다.

22

권행가, 2014, “근대 아시아 미술계의 초기 여성작가들”, 『6기 근현대미술사 아카데미』, 국립현대미술관, 40쪽.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관(상설전시실)

천경자는 1991년 ‘미인도’ 위작 사건의 충격으로 절필을 선언하며 자녀가 있는 미국으로 떠났다. 1998년 서울시에 1940년대부터 90년대까지 60여 년에 걸쳐 제작한 작품 93점을 기증하였다. 기증된 93점 중 62점이 30여 년간 총 17개국을 다니며 스케치한 작품들이다.

2002년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이 문을 열며 2층에 상설전시실을 마련해 ‘천경자의 혼’이라는 타이틀로 32점을 전시하고 61점을 보관하였다. 2014년 8월부터 ‘영원한 나르시스트, 천경자’라는 타이틀로 24점의 작품이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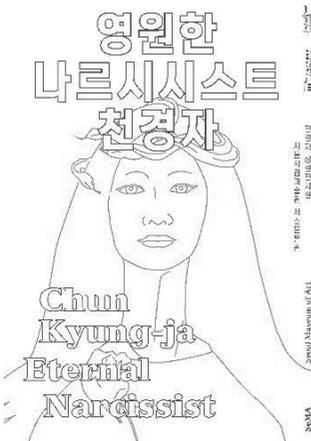


그림 3-13 서울시립미술관 천경자 전시 포스터

‘내 슬픈 전설의 이야기’, ‘환상의 드라마’, ‘드로잉’, ‘자유로운 여자’라는 네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천경자가 출판한 수필집을 소개하고 <생태>(1951)를 비롯해 <여인들>(1964), <바다의 찬가>(1965), <황혼의 통곡>(1995)과 같이 최근 몇 년간 미공개 되

있던 작품들을 공개하였다. 전시는 2020년 8월까지 진행된다.  
현재 천경자는 뇌출혈로 쓰러진 2003년 이후의 소식이 알려진 바 없  
다. 작가의 생존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기사화 되었다<sup>2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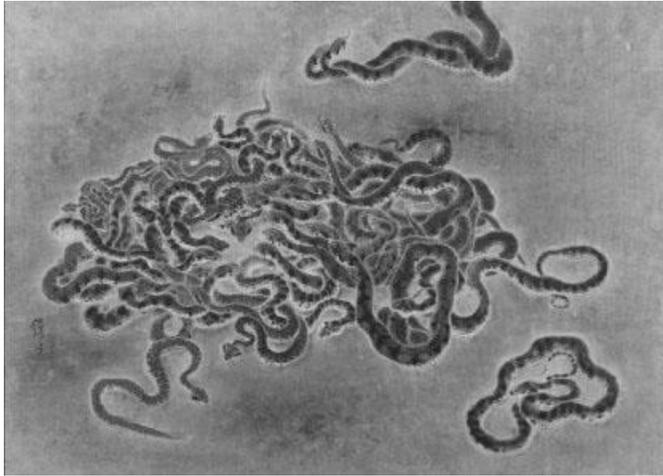


그림 3-14 <생태>(1951)

자료: 서울시립미술관

---

23 국민일보, 2014. 6. 21. “‘천경자의 근황’이 궁금하다”; 중앙일보, 2014. 1. 12. “뉴욕의 천경자 화백 미스터리” 등

## 나혜석(1896-1948)

나혜석은 1896년 경기도 수원에서 출생하였으며 호는 정월(晶月)로,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이자, 문학가, 독립운동가, 여성해방운동가이다.

1913년 진명여고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와세다 대학을 다니던 오빠 나경석의 주선으로 18세에 동경으로 유학을 떠나 동경여자미술학교(이후 5년제 여자미술학교로 변경됨) 서양화과 선과에 입학하였다. 입학 당시 고희동, 김관호, 김찬영이 재학 중이었다. 재학 당시 근대적인 여권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며 일본 첫 여성 문예동인지인 『세이토』 등을 통해 글쓰기를 시작하였다.

또한 이광수, 전영택이 편집진으로 있던 동경한국인유학생 기관지인 『학지광』 제3호에 훗날 근대적 여권론의 주요 글이 되는 「이상적 부인」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도 『학지광』과 최초의 여성잡지로 평가받는 『여자계』에 글을 발표하였다.

1918년 졸업 후 귀국하여 교직 생활을 겸하며 단편소설을 발표하고 이화학당만세사건으로 옥중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친구 김일엽<sup>24</sup> 등과 함께 청담회(靑澗會)를 조직하고 여성 중심의 잡지 『신여자』를 창간하였다. 나혜석은 염상섭, 김일엽 등과 함께 문학동인지 『폐허』의 창간 동인이다.

문학인으로서의 활동과 더불어 잡지에 판화를 발표하거나 삽화를 그렸으며 결혼 후 1921년에 경성일보사 내청각에서 열린 유화 개인전

24

김일엽(1896-1971)은 일제강점기의 여성운동가, 언론인, 시인이자 승려이며, 시인 겸 수필가이다. 1918년 이화학당을 졸업한 후 일본으로 유학, 일본 닛신여자학교를 졸업했다. 유학시기부터 나혜석과 함께 개화기 신여성운동을 주도하였고 일본에서 문인으로 데뷔하여 시, 소설, 칼럼 등을 발표하고 귀국 후 매일신보, 동아일보의 기자로 있었으며(1921·1931년),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문단, 매일신보 등에 칼럼과 논설을 기고하는 등 언론인으로 활동하였다. 1933년 출가, 충남 예산 수덕사에 1971년 입적한다(참고: 위키백과).

은 개최 후 이틀간 5천여 명의 관람객으로 성황을 이루고 70여 점의 작품 중 20여 점은 고가로 팔렸다.

1922년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에 〈봄이 오다〉, 〈농가〉로 입선한 후 10년 동안 매회 연속 출품하여 총 18점의 작품을 입선, 특선하며 서양화가로 인정받으면서 왕성히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결혼 생활 중 최린과의 연애사건으로 인해 남편 최우영에게 이혼을 당하고 사회적 지위를 잃으며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등 사생활에서의 삶은 평탄치 않았다.

이혼 이후의 나혜석의 삶은 결국 어려움에 봉착하고 결국 53세의 나이에 무연고 행려병자로 사망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나혜석은 근대 초기 신여성의 삶의 측면뿐 아니라 미술과 문학작품을 통하여 당대의 선각자로서 재조명되고 있다.

1988년 한국여성문학연구회 창립 심포지엄에서 서정자 교수는(초당대 명예교수) 나혜석의 소설 ‘경희’와 ‘희생한 손녀에게’를 발굴, 소개하여 나혜석을 최초 근대여성작가로서 위상을 밝혔다.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로 알려졌던 나혜석이 근대여성문학에서 차지한 가치가 훗날 밝혀진 것이다.

또한 1990년부터 정월 나혜석 기념사업회에 의해 ‘나혜석 바로알기 심포지엄’이 개최되어 매해 열리고 있다. 이처럼 나혜석은 다양한 각도에서 체계적인 자료조사와 각계 전문가들에 의해 화가와 문학가 외에 여성운동가, 민족운동가 등의 이면도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다. 나혜석의 고향인 수원시에서는 ‘나혜석 여성미술대전’, ‘나혜석 추모 백일장’ 등 행사를 개최하였다.

나는 18세 때부터 20년간을 두고 어지간히 남의 입에 오르내렸다.

즉, 우등 1등 졸업사건, M과 연애사건, 그와 사별 후 발광 사건, 다시 K와 연

에 사건, 결혼 사건, 외교관 부인으로서의 활약 사건, 황옥(黃玉)사건, 구미 만유 사건, 이혼 사건, 이혼 고백장 발표 사건, 고소 사건, 이렇게 별별 것을 다 겪었다. 그 생활은 각국 대신으로 더불어 연회 하던 극상 계급으로부터 남의 집 건넌방 구석에 굴러다니게 되고, 그 경제는 기사·기선에 1등, 연극·활동사진에 특등석이던 것이 전당국 출입을 하게 되고, 그 건강은 쾌활 씩씩하던 것이 거의 마비까지 이르렀고, 그 정신은 총명하고 천재라던 것이 천치 바보가 되고 말았다.

(중략)

이와 같이 사람 능력으로 할 만한 일은 다 당해보고 남은 것은 사람의 버린 것밖에 없다. 어찌 하면 다시 내 천성인 순진하고 정직하고 순량하고 운유하고 부지런하고 총명하던 그 성품을 찾아볼까. 다 운명이다.

우리에게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있다. 그러나 그 운명은 순순히 응종(應從)하면 할수록 증장(增長)하여 닥쳐오는 것이다. 강하게 대하면 의외에 힘없이 쓰러지고 마는 것이다<sup>25</sup>.

## 111 나혜석의 장소

### ○ 정동예배당(현 정동제일교회)

서울 중구 정동 34(정동길 46)

정동예배당은 나혜석의 1920년 한해에 의미 있는 장소였다. 1920년 3월 동경 유학에서 만난 친구 김일엽, 박인덕, 김활란 등과 함께 청담회를 조직하고 여성 중심의 잡지 『신여자』를 창간하면서 강연회를 가진 곳으로 당시 500여 명이 방청하는 대성황을 이루었고 남녀학생 800여 명이 참가한 개최된 조선학생대회에서 여성계 대표 중 한 명으로 참석하여 격려하였던 곳이다. 4월 10일에는 이곳에서

25 이상경, 2002, "신생활에 들면서", 「나혜석 전집」, 태학사, 437쪽.

남편 최우영과 결혼식을 올렸다.

○ 여자미술학사(현 OCI미술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15

나혜석은 이혼 후 1934년에 ‘이혼 고백서’를 발표, 연애사건의 상대인 최린을 상대로 낸 제소장으로 인해 점점 더 사회적 냉대와 함께 그의 마지막 삶을 예고하는 길로 접어든다.

나혜석은 미술교육에도 관심이 있어 1919년 고려화회 설립에 참여하여 제자 양성에 힘썼는데 당시 화가 구본웅이 나혜석의 제자였다. 1933년 2월 수송동 146번지에 ‘여자미술학사’를 개설하고 이 학사의 건립을 기해 “여자미술학사 취의서”를 발표, 그녀의 계몽정신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켰다.

1932년 조선미전에 출품한 3점이 입선하였으나 다음해에는 낙선하자 그 이후로 조선미전에 불참하였다. 한편 나혜석은 여자미술학사에서 주문에 의한 초상화를 제작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여자미술학사는 개설한 지 2년 후 1935년 문을 닫는다.



그림 3-15 여자미술학사 터(현 OCI 미술관)

- 수덕여관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산 41

나혜석은 1937년 겨울, 수덕사에 첫 방문을 하며 주변지역의 사천 다솔사, 공주 마곡사, 양산 통도사, 합천 해인사 등지를 순례하고 1939년부터 수덕사 아래의 수덕여관에서 장기체류를 시작한다.

당시 수덕사에는 일본 유학시절부터 함께 활동하던 김일엽이 비구니가 되어 수도승의 길을 걷고 있었다. 나혜석은 출가의 권유를 받았지만 거절하였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점점 불교에 귀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덕여관에서 체류하는 동안 자주 방문하였던 충남 예산 출신의 이응노 화백은 1945년에 수덕여관을 인수하여 부인(박귀희)이 운영하였다. 이후 도불한 이응노 화백은 1967년 동백림사건으로 연류되어 수감생활 후 요양차 이곳에 돌아와 체류하였다. 머무는 동안 수덕여관 앞뜰의 바위에 암각화를 남긴다. 1996년 충청남도기념물 제103호로 지정되었다.

- 경성보육원(현 안양 좋은 집)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52번길 46

나혜석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는 장소이다. 경성보육원은 한국 최초의 서양의학 의사이자 독립운동가인 오금선 박사가 1922년 서울 청운동에 설립한 경성보육원 및 경성양로원의 모체로 1936년 안양으로 이전하였다. 현재까지 아동보호시설로 운영 중이지만 당시의 건물의 흔적은 전혀 남아 있지 않다.

1947년 52세의 나혜석은 이곳 경성보육원 내의 양로원에서 머물며 마지막 글을 집필하였는데 원장이었던 외사촌오빠의 부탁으로 방문한 미술학도 박인경(훗날 이응노의 부인)에게 정서를 부탁한다. 그

리나 이후 글의 행방은 알 수 없게 되었다.

번역가 한경미<sup>26</sup>는 프랑스에 귀화한 후 파리근교에 거주 중인 이응노의 부인 박인경에게 나혜석과의 만남에 관한 증언을 기사화하였다.

...손바닥 만한 방에서 가깝게 본 나혜석은 여전히 고운 모습이었다. 지난 15년 동안 고생하고 방랑했던 흔적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다. 나혜석은 다른 노인들처럼 쪽을 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단발 형식으로 자른 머리에 아마도 본인이 가위로 여기저기 뭉뚱뚱 자른 듯 한 모습이 마치 히피를 연상시켰다. 그럼에도 지성미가 물씬 풍기는 모습이었고 전혀 감정이 들어나지 않는 무표정에 가까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동안 겪은 고뇌를 아마도 무심으로 극복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중략)

"이건 내가 심심할 때 써 놓은 글인데 자서전 비슷하다고나 할까. 학생이 한번 읽어보고 교정해서 새로 정서해 주면 좋겠는데"라고 물어온다<sup>27</sup>.

이후 나혜석은 안양보육원을 나와 오빠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으나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곳을 전전하다 이듬해 1948년 12월 10일 용산시립 자혜병원(현 용산경찰서)에서 무연고자로 생을 마감한다. 나혜석의 대부분의 작품들은 소실되었고 현재 30여 점의 작품만 남아 있다.

---

26 한경미는 1989년부터 프랑스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번역가, 통역가, 자유기고가로 '파리에서의 나혜석'이라는 15분짜리 다큐픽션 영화를 제작하였다. 나혜석의 인생의 절정기였던 1927년 남편 김우영과 유럽여행에 나서 약 8개월간 홀로 머물렀던 파리에서의 생활을 담고 있는 내용이다.

27 오마이뉴스, 2007. 2.1, "시대를 앞서간 나혜석, 불행은 필연이었나...".

○ 나혜석 거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2000년 6월 24일 조성된 나혜석 거리는 수원 인계동 효원공원 서쪽의 음식점이 밀집한 지역 안에 조성된 문화거리이다. 길 건너 대형마트, 영화관, 아파트 단지가 자리하고 있어 수원에서 북적이는 지역 중 한 곳이다.

수원시는 2001년에 제1회 나혜석 거리축제, 2005년 5월에 ‘나혜석 거리 추모 백일장’을 개최하였고 2011년 1월 나혜석 생가 터로 추정되는 신평동 47번지에 생가를 복원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불명확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2012년 수원시 팔달구 신평동 130번지 일대에 나혜석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밝혔다. 이후 나혜석 기념관 건립은 무산되었고 2015년 10월 완공되는 수원시립미술관에 통합 설치될 예정이다.



그림 3-16 수원 인계동 나혜석 거리

## 구본웅(1906-1953)

구본웅은 1906년 서울에서 출생하였으며 호는 서산(西山)으로 서양화가, 조각가, 미술평론가이다.

유복한 집안의 외아들로 출생한 구본웅은 두 살 무렵 마루에서 떨어져 척추를 다쳐 불구가 되었다.

부친인 구자혁은 기업인으로 동양홍산이라는 종합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젊은 시절 황성신문 기자와 종합잡지 『개벽』의 편집장을 역임하고 1934년부터 창문사라는 대형출판사를 운영하였다. 후에 구본웅은 창문사 지배인이 되어 신명보통학교 동창이자 절친한 친구 시인 이상이 제비다방, 쓰루다방 등 사업에 실패하자 출판부장으로 일하게 도와주었다.

구본웅은 본격적인 미술수업을 서양의 새로운 회화방법을 가르치던 고려미술원(高麗美術院)에서 고희동과 나혜석에게 서양화를 배우고 이후 조각가 김복진에게 조각을 배웠다.

1921년 조선미술전람회에 〈얼굴습작〉으로 조각 부분 특선으로 입상하였으나 일본으로 유학 간 후 서양화로 전환하였다.

가와바타 미술학교, 니혼대학, 다이헤이요 미술학교에서 미술이론과 유화를 공부하고 1933년 귀국하였다. 귀국 전 다이헤이요미술콩쿠르에서 수상, 이과전(二科展), 독립전(獨立展) 등에 출품, 입선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귀국 후 서양화가 단체인 '목일회'를 창립하고 1938년 이상, 이육사 등의 필진이 참여한 종합문예지인 『청색지』를 창간해 약 2년 동안 발행하였다.

구본웅은 '한국의 로트렉'이라 불리며 강렬한 색채와 거친 붓질의 화풍으로 야수파 계열로 평가받는다. 그의 상당수의 작품이 6·25 때 불타버려 남아 있는 작품은 드물지만 대표작인 〈여인〉(1930), 시인 이상을 그린 〈우인상〉(1935)을 비롯한 일부는 현재 국립현대미

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림 3-17 <우인상>(1935)  
캔버스에 유채, 62x50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자료: 국립현대미술관

## 12 1 구본웅의 장소

### ○ 구본웅 집터

서울 종로구 필운동 80, 90

구본웅이 태어난 곳으로 현재 소호갤러리 뒤 집터로만 남아있다.

1953년 구본웅은 급성 폐렴으로 필운동 근처 누하동의 아버지 집에서 눈을 감았다.

## 이중섭(1916-1956)

평안남도 평원 출생. 평양농공은행장을 지낸 유력자 집안의 외손자로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평안북도 정주의 오산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미술교사였던 임용련(시카고미술대학과 예일대에서 미술공부를 하고 파리에서 활동했던 이력의 소유자였다)의 영향으로 드로잉의 중요성을 배워 후에 그의 생애에 다수의 드로잉을 남기게 된다.

오산고보를 졸업 후 1937년 일본으로 건너가 분카학원(文化學院) 미술과에 입학하였다. 재학 중 독립전(獨立展)과 자유전(自由展)에 출품하여 신인으로서 각광을 받았다.

1940년 미술창작가협회전(자유전의 개칭)에 출품하여 협회상을 수상하고 1943년에는 역시 같은 협회전에서 태양상(太陽賞)을 수상하였다. 2년 후 일본인 여성 야마모토 마사코(이남덕으로 개명함)와 결혼하여 2남을 두었다.

이중섭은 6·25 전쟁 이후 가족들과 함께 부산을 거쳐 제주도로 건너가 생활하다가 다시 부산으로 돌아온 후 1952년 부인 이남덕과 두 아들은 일본으로 건너간다. 홀로 남은 그는 통영과 진주에서 칠기기술 원양성소에 기거하며 데생을 가르치며 작품에 몰두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54년 상경하여 지인이 내어준 이층집 방에서 생활하다가 신수동 이종사촌 집으로 옮기는 등 더부살이가 계속되었으나 1954년 한해 서울에서의 이중섭은 온종일 작품에만 몰두하며 <도원>, <길 떠나는 가족>, <닭> 등 명작을 제작하였다.

1955년 1월 미도파화랑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당시 전시는 이중섭의 소 그림 중에 최고의 걸작으로 꼽는 <흰 소1>과 통영에서 그려가지고 올라온 <통영 붉은 소1>이 포함된 전시였다.

중섭 형의 그림을 보면 예술은 타고나지 않고는 하기 힘들다는 것이 절실히 느껴진다. 중섭 형은 참 용한 것이 있다. 어떻게 그러한 것을 생각해내고 또 그렇게 용한 표현을 하는지, 그런 것이 정말 개성이요 민족 예술인 것 같다. 중섭 형은 내가 존경하는 미술가의 한 사람이다.

김환기, 1955, '이중섭 개인전' 팜플렛

서울 전시에서 화단의 호평을 받았지만 몇몇 그림이 외설스럽다는 이유로 당국에 의해 철거되고 45점 출품작 가운데 20여 점이 팔렸지만 그림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그 해 4월 대구 미공보관 화랑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열었으나 작품 판매가 어려워지고 대구 전시회 이후 건강은 쇠약해지며 작품을 태우는 등의 정신분열증의 증세를 보여 대구의 한 병원에서 입원하였다.

1955년 8월 친구와 이종사촌이 서울로 이중섭을 데리고 와 누상동에서 거주하며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점점 건강은 나빠지고 입원과 퇴원이 이어졌다. 1956년 급성 간염으로 입원 간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며 병세가 악화되어 거식증까지 걸렸다.

1956년 9월 병실에서 마흔의 나이에 생을 마쳤다. 무연고자로 삼일간 처리되어 방치되었다가 뒤늦게 친구들에 의해 화장된 뒤 유골의 반은 망우리 공동묘지에 묻히고 반은 일본에 있는 아내에게 보내졌다.

## 131 이중섭의 장소

### ○ 이중섭 누상동 집터

서울시 종로구 누상동 166-202(옥인6가길 44-11)

이중섭은 1954년 6월 초 진주에서 상경하여 1955년 10월 말까지 누상동에 거주하였다. 평원, 정주, 도쿄, 부산, 진주, 통영, 제주도, 서울, 대구 등지를 전전하며 살아온 생애 동안 서울 누상동에서의

삶은 화가로서 오직 그림에만 몰두하며 작품 활동에 집중하여 다수의 명작을 제작하였고 그림을 그리면서 훗날 일본에 있는 가족들과의 함께 살게 되는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보낸 시절이었다.

이중섭은 비록 누상동 집에 5개월가량 거주하였으나 생애의 첫 개인전을 준비하였고 다수의 명작을 남긴 장소로 의미가 있는 곳이다. 현재 개인주택으로 과거 이중섭이 살았던 가옥의 형태는 남아있지 않다.

## 박수근(1914-1965)

강원도 양구 출생. 박수근의 유년시절은 농사와 상업을 하는 집안으로 부유하였다. 양구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집안 형편이 곤궁해져 중학교 진학을 못하였으나 화가의 꿈을 갖고 독학을 결심하였다. 1932년 18세에 제11회 조선미술전람회 서양화부에 수채화 〈봄이 오다〉로 첫 입선을 하였다.

박수근은 1940년 결혼 후 평안남도 도청 사회과의 서기로 취직되어 평양으로 떠나게 되고 그 후 8·15 해방 후 미술교사로 교직생활을 하였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가족과 헤어져 홀로 남하하여 군산에서 부두 노동자로 생활하며 다시 그림을 시작하였다.

제2회 대한민국미술전(약칭 국전)에 〈집〉이 특선으로 선정되고 이때부터 단순화시킨 소박한 주제 전개와 굵고 명확한 검은 선의 윤곽선 등 특질적인 표현을 보이며 박수근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였다. 박수근은 말년에 백내장 수술과정에서 왼쪽 눈의 시력을 잃었지만 작업을 계속하여 〈할아버지와 손자〉로 국전에 출품하였다. 다음 해 1965년 51세에, 간 경화와 응혈증 악화로 생을 마감하였다.

### 박수근의 장소

#### ○ 창신동 박수근 집터

서울시 종로구 지봉로 11(종로구 창신동 393-16)

박수근은 가족과 상봉한 후 1953년에서 말년 1963년까지 창신동에 정착하며 그의 생애의 대부분의 작품을 이곳에서 제작하였다. 창신동 집은 혜화동에서 화방을 운영하는 이상우의 소개로 미군 PX에서 초상화를 그리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며 모은 돈으로 마련할 수 있었다.

ㄷ자형 한옥은 마루를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안방과 부엌이, 왼쪽에는 건넌방이 있었다. 그나마 건넌방은 세를 주고 수근 가족은 안방에 모여 살았다. 이곳은 수근 가족에게 자랑스럽고 또 자랑스러웠던 보금자리였다. 수근은 안방과 마루를 작업실 삼아 그림을 그렸다. 창신동 마루는 수근 그림에 등장하는 〈기름 장수〉와 같은 행상들이 길을 지나가다 잠시 쉬던 쉼터였고, 한국에 머물던 몇몇 외국인들이 종종 찾던, 폐허가 된 나라 무명 화가의 작업실이었다. 외국인들이 수근의 그림을 구경하러 오는 날이면 아내는 작은 마당을 왔다 갔다 하며 손님 맞을 준비로 정신이 없었다<sup>28</sup>.

박수근은 주한 외국인 미술애호가들에게 가장 한국적인 소재와 정감 및 특이한 조형수업의 화가로 평가받으며 작품판매를 하였지만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생활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매년 국전에 작품을 출품하면서 꾸준히 그림을 그렸다. 그의 아들 박성남은 “굶주림에 지친 어머니께서 콩자반 몇 알에 냉수만 들이키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라고 그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sup>29</sup>.

창신동은 박수근 집터에서 낙산공원으로 이어지는 가파른 길에 일제강점기에 채석장이 있었는데 6·25 전쟁 이후 채석장 주변 경사진 길로 낮은 판잣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서민동네였다. 〈시장사람들〉, 〈절구질하는 여인〉, 〈빨래터〉, 〈노상의 사람들〉, 〈행인〉, 〈노상〉 등 제목에서 말해지듯 작품 안에 서민의 삶과 장소가 보이는 것은 당시 창신동의 풍경들이 화폭에 담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동대문 완구종합 상가 끝자락에 위치한 박수근의 집터에는 표석만이 남아있다. 1962년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생기면서 박수근의 집은 반 토막이 났고 집 철거로 인해 1963년 전농동으로 이사하였

28 공주형, 2009, 「착한 그림, 선한 화가 박수근」, 예경, 29쪽.

29 이석우, 1995, “박수근의 미술세계-민중 정서의미를 창출한 위대한 환경이”, 문학춘추사

다. 당시 박수근은 집만 소유한 땅의 소유권이 없는 상태로 계약되었기에 권리주장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창신동은 박수근뿐 아니라 미디어아티스트 백남준(1932-2006)이 살았던 곳이다. 문화계 각 분야 인사들은 2015년 5월 6일 박수근의 50주기를 전후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릴 대규모 박수근 작품 전시회를 시작으로 창신동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을 추진하는 계획을 밝혔다.

박명자 갤러리현대 회장은 “박수근과 백남준은 한국에서뿐 아니라 글로벌 문화예술계에 커다란 이정표로 작용할 수 있는 높은 가치의 아이콘”이라고 말한다. 박 회장은 “버려지다시피 방치된 공간의 문화적 역사를 다시 돌아볼 수 있게끔 정돈하는 것만으로도 상상 이상의 파급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예술문화 거리 조성에 관련해 승효상 서울시 총괄건축가는 “창신동은 예술적 유산이 도시의 일상과 융합해 품격 높은 문화적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의견을 밝혔다<sup>30</sup>.



그림 3-18 박수근 집 터 표석    그림 3-19 창신동 절개지 풍경

30    중앙일보, 2015. 1. 8. “창신동 예술문화 거리 조성, 백남준 생활 공간, 지금은?”.

## 장소의 연결 1 - 창신동

창신동에 기반을 두고 활동 중인 러닝투런은 신윤예, 홍성재로 이루어진 작가 그룹이다. 창신동에 ○○○간(공공공간) 사무소와 ○○○간 플랫폼을 운영하며 봉제공장들과 협업으로 상품을 만들고 교육,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현재의 창신동에서 문화예술의 플랫폼 역할을 맡고 있다.

2013년 러닝투런이 기획한 전시 <도시의 산책자>는 방문객이 창신동 일대의 장소인 ‘박수근의 집터’와 미디어아티스트 ‘백남준의 생가 집터’, 옛 채석장의 흔적이 남아 있는 ‘절개지’, ‘낙산봉제거리’, ‘창신시장’, ‘홍표실집’, ‘안양암’, ‘낙산공원’, ‘미스터리 빈집’, 등 15군데의 장소에 관한 이야기가 녹음된 음성녹음기를 가지고 지도를 따라 자율산책을 하거나 두 시간 동안 마을해설자와 함께 장소를 둘러보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전시이다.



그림 3-20 <도시의 산책자> 지도 앞면

자료: 러닝투런

음성파일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각자 장소에 관하여 풀어낸 이야기들이 육성으로 녹음되어있어 방문객에게 과거와 현재의 창신동의 장소들을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

“옛날에는 여기가 돌산이었고 이 돌을 다 캐서 해다가 옛날에 지금 광화문 있잖아. 그 뒤에 중앙청이 있었어. 중앙청에 갖다 짓고 또 그 앞에는 경기도청이 있었어. 코너 이쪽에 돌아오면서. 그 돌도 다 여기서 채석해서 지은 거야. 그리고 한동안 6.25가 나고 시골에서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는 바람에 여기가 별난 그 공터 비슷하게 산으로 되어있으니깐 가마때기 같은 것 치고 여기다가 집을 짓고...”

(중략)

납작하게 전봇대 집 있지? 다 그런 집, 빨간 기와 얹어지고 집...그런 식이었거든. 그러다 중간에 재개발되어서 층층이 올라갔고 또 그 다음에는 사람이 워낙 많이 살다 보니깐 동네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위치로 보서는 복잡한 것 같지. 옛날에 비하면 다 빌딩이라. 옛날에는 천막 쳐놓고 있다가 다 그렇게 지은 집들이야.”

(절개지(돌산밀) 2' 27-음성 화일에서 발췌 요약)

과거 창신동은 일제강점기에는 채석장이 있던 장소로 그곳에서 나오는 돌로 덕수궁 석조전, 한국은행, 조선총독부 등 당시 서울 시내의 대부분의 석조 건물이 지어졌다. 채석장으로 인해 창신동 일대는 낮에도 폭탄 소리가 빈번히 들렸던 동네였고 6·25 전쟁 이후에는 채석장 주변으로 상경한 이주민들이 정착하여 판잣집들이 우후죽순 지어진 거주지의 풍경을 만들었다.

60~70년대의 창신동은 봉제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골목마다 미싱 소리가 퍼져 나왔던 동네였다. 이후 대량생산체제로 봉제 산업

의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현재까지 동대문 의류도매시장에 의지하여 주민 다수가 소규모의 봉제공장을 운영하며 그 맥을 이어 가고 있다. 지도에서 보이는 창신동의 15곳의 장소와 같이 과거와 현재의 장소가 함께 어울려져 소개되어 방문객에게 창신동이라는 지역에 대한 호기심과 이해를 끌어낸다.

“러닝투런이 첫째로 주요한 사업으로 삼으며 지향하는 것은 패션분야에서 마케팅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거나 브랜드를 만드는 통찰력이 있는 청년들을 양성해서 기존의 봉제하시는 분들과 같이 협력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그분들끼리 협동조합을 이루거나 창의적인 제작스튜디오를 만드는 방식으로 지역에 활기가 더해지고 다양한 일거리들이 유입되어 고부가가치의 일들이 많아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지역 페스티벌입니다. 지역에 다양한 공동체들이 함께하는 마을축제개념으로 다 같이 모여서 자신의 생산품이나 작품을 판매하거나 중고시장과 같은 물품교환 등이 이루어지는 행사를 통해 마을의 새로운 변화들이 삶에 있어서 왜 중요한 것인지 나누게 되는 즐거운 장이 되기를 그려보고 단발적인 행사나 사업이 아닌 ‘지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기를 기획하고 추진 중입니다<sup>31</sup>.”

이렇게 창신동의 예술가들은 장소가 가진 이야기를 역사 안에만 담아두지 않고 장소를 발견하고 드러내며 현재로 소환하여 과거와 현재의 장소간의 연결을 시도한다. 장소에 대한 가치가 부여되고 진화해가는 사례를 창신동에서 찾을 수 있었다.

---

31 러닝투런의 신윤예 공동대표와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함(2015. 1. 5.).

## 장소의 연결 2 - 서울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한국근대미술에 대한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의 덕수궁 분관을 비롯하여 몇 군데의 사립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이루어져 왔다. 덕수궁분관이 1978년부터 정기적으로 기획전의 형식으로 비교적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근대미술가 중에 특정 유명작가들의 전시가 대다수라고 볼 수 있다.

국립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이름에서 말해지듯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과천관에 이어 서울관으로 규모를 넓혔다. 전국 주요 도시의 사립미술관 역시 전시의 내용의 초점은 현대미술이다.

근대미술에 대한 전시는 소장하고 있는 사립미술관과 갤러리를 통하여 접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있는데 이러한 상황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정인물의 전시가 대부분이어서 근대미술에 대한 실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특정 작가에 국한되지 않고 연대순으로 광범위한 작품을 체계적으로 연구, 분류되어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장소이자 작품이 영구적으로 소장되어 관람이 가능한 ‘근대미술관’의 건립 필요성을 깨닫는다.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의 근대미술전시 목록<sup>32</sup>  
(1978년부터 2014년까지 발췌 요약)

년도	전시	비고
1978	우향 박래현 초대 유작전	

32 국립현대미술관은 1969년 경북궁에서 개관하여 1973년 덕수궁 석조전 동관으로 이전하였다가 1986년 과천에 현대미술관으로 2013년 11월 서울 종로구 소격동에 서울관 건립, 개관하여 확장하였다. 1998년 덕수궁 내에 덕수궁 미술관 분관으로 개관하였다.

년도	전시	비고
1979	유영국전 국현대미술-1950년대 서양화전 동양화가의 눈으로 본 한국의 자연전(실경산수화전)	
1980	김중영 초대전 한국현대미술-1950년대 동양화전 운보 김기창 초대 회고전	
1981	남관 초대전	
1982	청전 이상범 10주기 기념특별전	
1983	구본웅 특별전	
1984	김환기 10주기전 송병돈·박상욱·박수근 특별전 한국근대미술 자료전	
1985	곽인식 초대전 최영림 회고전 오지호 회고전	
1998	한국근대미술: 조소-근대를 보는 눈 다시 찾은 근대미술	
1999	한국 근대미술: 조소-근대를 보는 눈	
2000	심산 노수현 탄생 100주년 기념 한국근대미술의 한 단면-한국은행소장품을 중심으로 오르세미술관 한국전-인상파와 근대미술	
2001	근대 명품 전 배운성 전 올해의 작가 2001: 권옥연 전 자라나는 날개: 김정숙	
2002	바보천재 운보그림 전 한국근대회화 100선전(1900-1960) 중국 근현대 오대가전 올해의 작가 2002: 전혁림 계절의 여운: 류경채 회고전 균형과 조화의 미학: 도천 도상봉 탄신 100주년 기념전	
2003	안상철: 수묵과 오브제 올해의 작가 2003: 한묵 한중대가: 장우성, 이가염	
2004	올해의 작가 2004: 정점식 대한민국예술원 50주년 기념특별전 다시 고암을 생각한다: 고암 이응노 탄생 100주년 기념전	
2005	한국현대조각의 선구자: 김중영 광복 60주년 기념-한락연 특별전	
2006	소정, 길에서 무릉도원을 묻다 근대의 꿈: 아이들의 초상	

년도	전시	비고
2007	남궁 허건 고통과 환희의 변주: 김보현의 화업 60년전	
2008	최영림 무나카타 시코 한국근대미술 걸작전: 근대를 묻다	
2009	권진규 전	
2010	봄을 기다리는 소년-박노수, 아시아 리얼리즘	
2012	이인성 탄생 100주년 기념전	
2013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특별기획전: 한국근대미술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특별전: 삶 속의 미술 명화를 만나다-한국근현대회화 100선전	
2014	대한민국예술원 개원 60년: 어제와 오늘 조르조 모란디: 모란디와의 대화	

### ○ 근대미술관 목록

분류	장소	소재지	비고
서울소재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덕수궁관: 기획전으로 운영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관		천경자 상설전시실
	김종영 미술관	종로구 평창동	
	환기 미술관	종로구 부암동	김환기
	종로구립 박노수 미술관	종로구 옥인동	
	한벽원 미술관	종로구 팔판동	장우성
타 지역	문신미술관	경상남도 창원	
	박수근 미술관	강원도 양구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경기도 양주	
	월전미술관	경기도 이천	장우성
	운보 미술관	충청북도 청원	김기창
	이응노 미술관	대전광역시	이응노
	이중섭 미술관	제주도 서귀포시	이중섭
	전혁림 미술관	경상남도 통영	전혁림

근대의 서울은 예술가들의 활동하였던 주요 무대였고 그 흔적들은 연구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이 지닌 장점을 특화하여 장소의 구심점으로 삼고 현재 작가의 출생 지역에 건립되었지만 지

리적인 여건으로 다소 방문이 용이하지 않은 타 지역의 근대미술관과 서울의 미술관이나 작가와 관련된 장소 간의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연결을 시도하는 방법과 서울의 작가와 관련된 장소를 서울 근교까지 넓혀 광역 동선을 만들어 근대문화 루트를 풍부하게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 공간의 재현

한국화가 청전 이상범의 작업실이자 화실인 청전화숙을 예로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청전화숙은 인왕산 수성동 계곡으로 향하는 옥인 길을 비롯하여 서촌(세종마을)의 주요 관광명소와 가까운 방문의 지리적 장점을 갖춘 곳으로 자택인 청전화옥과 함께 비교적 훼손되지 않은 건축물로 이상범이 30년 넘게 거주하였으며 보존을 부탁하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 작가 생전에 애착이 있는 장소이다.

그는 생전에 고향의 시골 정취를 느끼고자 자택과 작업실 곳곳에 식물을 키우고 남대문 시장에서 자라를 사와 화실 안의 연못에 넣어 기르거나 마당 한편의 닭장에 꿩 몇 마리를 두어 꿩이 우는 소리를 즐기기도 하였는데 작업실 내부 창가 아래에 파인 공간은 물소리를 좋아하는 그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작업실 안에 연못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그림 3-21 청전 이상범



그림 3-22 화실 안의 연못

현재 작업실의 내부를 살펴보면 화판에 영성히 걸려 있는 구겨진 종

이나 연못이었던 공간 안에 어항을 대체한 모습 등에서 공간 재현에 대한 개선의 필요를 절감할 수 있었다. 작업실 내부의 연못이란 다른 작업실에서 찾아보기 힘든 작가의 취향이 극명하게 보이는 개성 있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작업실 풍경이 생전의 작가가 사용할 때의 모습으로 재현된다면 방문을 위한 동기유발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현재 작업실의 공간 재현의 상태로 보아 관리와 유지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몇 가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평소 물소리를 좋아하여 작업실 안에 연못을 만든 작가의 의도를 염두하여 그가 연못에서 들었을 듯한 물소리를 녹음하여 음향기기를 통해 공간에 들리게 하는 청각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청각적인 방법은 연못을 관리해야 하는 애로 사항을 해결함과 동시에 방문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연못 뿐 아니라 마당에도 같은 방법으로 작가가 기르던 평의 소리를 들리도록 연출하여 화실과 자택의 공간 전체에 생동감을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이와 관련된 이야기와 시각자료들을 제시함으로써 방문객의 풍부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유도가 가능하다.

시각적인 면에서도 개선할 부분이 보이는데 작업실안의 화판에 영성히 걸려 있는 구겨진 빈 종이 대신 제작 중인 그림을 두어 현실감 있는 작업실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다. 더불어 한국화가인 작가가 주로 사용하였던 먹의 향이 작업실 안에서 감지될 수 있도록 후각적인 방법을 추가한다면 방문객의 체험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자택인 청전화옥 안의 방과 거실에는 작가의 포스터와 자녀의 그림 몇 점이 설치되어있다. 결국 청전화옥과 청전화숙에서 작가의 작품을 접할 수 없는데 최소한 작가의 화집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작가의 작품세계를 볼 수 있는 화집과 같은 인쇄물이나 간략

한 리플릿 비치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작가의 대표작품을 소개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작업실이란 작가의 사적인 공간으로 작품 제작의 산실인 작업실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다. 방문객의 관심이 일회성 방문으로 그치느냐 재방문으로 이어지는가의 여부는 방문 당시의 경험으로 결정지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말하자면 방문객이 공간 안에서 어느 '순간의 체험'이 장소에 대한 긍정적 인상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 방문 후에도 그 영향이 이어져 장소와 관련된 인물, 작품, 문화, 역사 등 다양한 각도로 관심이 증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작품을 접할 수 있는 타 장소까지(미술관이나 작품배경의 장소 등) 방문으로 연장되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방문객의 잠재성을 염두하여 장소가 가진 장점을 드러내는 공간재현의 세심한 연출력으로 개선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IV 결론과 정책 제언

## IV 결론과 정책 제언

서울에서 근대 문학과 미술의 장소를 발굴하여 정리한 이 연구는 도시의 이야기와 기억을 찾아내어 희미해져 가는 장소성을 되살리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예술가의 생애와 작품, 그리고 이야기들을 발굴하기 위해 흔적을 찾아보는 일은 서울의 잊혀졌던 새로운 모습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조사하여 정리된 내용을 활용해 테마 도보 여행을 위한 문화지도의 제작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어는 물론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도 함께 표기할 것도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조사된 장소들을 지역별로 연결하고 서울 성곽길과 연계한다면, 동선의 안팎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산책로를 조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간 여행을 떠나 정신적인 유산을 만날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길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문화 예술의 장소들을 도보로 연결하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충분한 검토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 속 문학의 장소는 흔적이 희미한 곳일지라도 관람자의 역동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표지석이나 문학관 유리 진열장 속의 자료도 중요하지만, 특정 장소에서 직접 책을 볼 수 있는 작은 책장이나 한 평 도서관 등으로 관람자가 직접 장소의 의미를 느끼고 소통할 수 있는 공공 구조물이나 ‘작은 건축’이 필요하다. 규모는 작지만 그 내용은 알차고 디자인은 감각적이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문학과 예술 속에 담겨 있지만 현재는 사라져버린 건물이나 장소의 흔적은 물리적으로 재현하려는 시도보다는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으

로 현재의 모습과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소설 ‘구보의 날’에서 주인공의 동선을 따라 소설의 내용을 기록해 나가는 축제는 표지석이나 문학관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과 예술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 특정적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면 한다.

‘도시문자탐사단 버스’와 같이 도시 내 장소와 장소 또는 한 도시와 다른 도시를 테마로 연결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를 제안한다. 단순한 시티투어 버스보다 훨씬 밀도 높은 체험으로 해외 관광객의 차별화된 여행 체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근대 시기를 중심으로 출발하여 그 전후 시기까지 테마로 이어나가는 문화 예술 산책 루트가 사람과 이야기, 문화와 역사를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문학과 미술의 장소를 발굴하면서 도시가 품고 있는 장소성을 고양시키고 일은 도시민이 얻을 수 있는 의미의 장을 형성하는 일이다. 도시의 외형적인 규모보다는 본질적인 의미에 충실하도록 하여 시간의 흔적과 인간의 정신이 존중받을 수 있으려면, 무형의 콘텐츠를 어떻게 확장하고 강화하여 도시의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지점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가 도시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참고문헌

- 2014 서울사진축제, 2014, 「서울視 공간의 탄생」, 서울역사박물관
- 게오르그 짐멜, 2005,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 공주형, 2009, 「착한 그림, 선한 화가, 박수근」, 예경
- 국사편찬위원회, 2008, 「근대와 만난 미술과 도시」, 두산동아
- 권영민, 2004,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민수, 2014, 「이상평전」, 그린비
- 김병중, 2014, 「화첩기행 2」, 문학동네
- 김수영, 1981, 「김수영전집 2 산문」
- 김용철, 박계리 외, 2014, 「6기 근현대미술사 아카데미」, 국립현대미술관
- 김자야, 1995, 「내 사랑 백석」, 문학동네
- 김정동, 2005, 「문학 속 도시기행1」, 옛오늘
- 김정동, 2005, 「문학 속 도시기행2」, 푸른역사
- 동국대학교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2001, 「근대 한국의 문학지리학」, 동국대학교출판부
- 미셸 푸코, 2014, 「헤테로토피아」, 이상길, 문학과지성사
- 민족문학사연구소, 2005, 「춘향이 살던 집에서, 구보씨 걸던 길까지」, 창비
- 박노수, 2014, 「화필인생」, 킷처북스
- 박정혜, 황정연 외, 2012, 「조선 궁궐의 그림」, 돌베개
- 박태원, 2005, 「천변풍경」, 문학과 지성사
- 박태원, 2008,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박태원 단편선」, 글누림
- 박태일, 1999, 「한국 근대시의 공간과 장소」, 소명출판
- 반정화, 2012, 「서울시 도보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 서울연구원
- 백석·이동순, 1995, 「백석시전집」, 창작과 비평사
- 삼성문화재단편집부, 1997, 「권진규」, 삼성문화재단

서울시립미술관, 2014, 「유니버설스튜디오서울」,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2011, 「옷대, 중인 문화를 꽃피우다」, 서울역사박물관

서정주, 1991, 「미당 시전집1」, 민음사

서정주, 1991, 「미당 시전집2」, 민음사

서정주, 1994, 「미당 시전집3」, 민음사

안도현, 2014, 「백석평전」, 다산책방

에드워드 렐프, 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오창은 외, 2014, 「경성에서 서울까지」, 서해문집

윤범모·박영택 외, 2011, 「나해석, 한국 근대사를 거닐다」, 푸른사상

이구열, 2011, 「나해석-그녀, 불꽃 같은 생애를 그리다」, 서해문집

이상, 2008, 「이상전집1-소설」, 가람기획

이상, 2008, 「이상전집2-시 수필 서간」, 가람기획

이상경, 2002, 「나해석 전집」, 태학사

이상경, 2009, 「나는 인간으로 살고 싶다」, 한길사

이태준, 1993, 「무서록」, 범우사

이태준, 2006, 「까마귀(이태준 단편선)」, 문학과지성사

장석주, 2011, 「이상과 모던 보이들 : 산책자 이상씨와 그의 명랑한 벗들」, 현암사

정규용, 2003, 「나해석평전」, 랜덤하우스코리아

조이담·박태원, 2009, 「구보씨와 더불어 경성을 가다」, 바람구두

존 앤더슨, 2013, 「문화·장소·흔적 : 문화지리로 세상 읽기」, 한울아카데미

최덕교, 2004,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최순우, 2002, 「나는 내 것이 아름답다」, 학고재

최열, 2011, 「권진규」, 마로니에북스

최열, 2014, 「이중섭 평전」, 돌베개

최예선, 2014, 「오후 세시, 그곳으로부터」, 지식너머

팀 크레스웰, 2012, 「장소」, 시그마프레스

한용운, 2014, 「한용운시전집」, 서정시학

허병식·김성연, 2009, 「서울, 문학의 도시를 건다」, 터치아트

홍선표, 2009, 「동아시아 미술의 근대와 근대성」, 학교재

<a href="http://www.kansong.org/">http://www.kansong.org/</a>	간송문화재단
<a href="http://www.000gan.com/">www.000gan.com/</a>	공공공간
<a href="http://www.mmca.go.kr/">http://www.mmca.go.kr/</a>	국립현대미술관
<a href="http://www.doopedia.co.kr/">http://www.doopedia.co.kr/</a>	두산백과사전 두피디아
<a href="http://www.k-heritage.tv/">http://www.k-heritage.tv/</a>	문화유산채널
<a href="http://www.cha.go.kr/">http://www.cha.go.kr/</a>	문화재청
<a href="http://www.visitseoul.net/kr/">http://www.visitseoul.net/kr/</a>	서울시공식관광정보사이트
<a href="http://www.wikipedia.org/">http://www.wikipedia.org/</a>	위키피디아
<a href="http://www.isang.or.kr/">http://www.isang.or.kr/</a>	이상의 집
<a href="http://lit.ifac.or.kr/">http://lit.ifac.or.kr/</a>	한국근대문학관
<a href="http://encykorea.aks.ac.kr/">http://encykorea.aks.ac.kr/</a>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a href="http://www.aks.ac.kr/">http://www.aks.ac.kr/</a>	한국학중앙연구원
<a href="http://www.kmlm.or.kr/">http://www.kmlm.or.kr/</a>	한국현대문학관





서울연 2014-CR-17

서울, 근대 문학과 미술의 장소

발행인 김수현

발행일 2015년 1월 14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25

비매품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